

TRADE FOCUS

2025년 32호

2025년 수출입 평가 및 2026년 전망

동향분석실 전보희 연구위원(평가/전망)

도원빈 수석연구원(동향/전망)

김규원 수석연구원(평가)

양지원 수석연구원(동향)

옥웅기 수석연구원(원자재)

김나율 연구원(IT)

허슬비 연구원(세계경제)

진옥희 연구원(환율)

통상연구실 전윤식 수석연구원(통상환경)

TRADE FOCUS 2025년 32호

2025년 수출입 평가 및 2026년 전망

| | |
|--------|-------------------------------|
| 발행인 | 윤진식 |
| 편집인 | 장상식 |
|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 발행일 | 2025년 11월 25일 |
| 디자인·인쇄 |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2-97호

CONTENTS

| | | |
|-------------------|--------------------------------|-----------|
| 01 | 2025년 수출입 동향 및 평가 | 7 |
| 02 | 2026년 무역·통상환경 전망 | 21 |
| 03 | 2026년 수출입 전망 | 29 |
| 04 | 품목별 수출 동향 및 전망 | 32 |
| 참고문헌 | | 58 |

본 자료는 협회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향분석실 전보희 연구위원

 02-6000-5188  bh.jun@kita.or.kr

| 요약

【 2025년 수출입 동향 】

■ (동향) 2025년 1~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5,792억 달러, 수입은 0.6% 감소한 5,228억 달러, 무역수지는 564억 달러 흑자

-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선박류,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
 - 반도체는 단가 상승 및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 유지, 자동차는 북미 수출 감소에도 EU·중남미·중동 등 대체시장 확대로 양호한 실적 시현
 - * '25년 1~10월 품목별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비 %) : (반도체) 17.8 (자동차) 0.9 (선박) 34.5 (일반기계) -9.3
 - * '25년 1~10월 지역별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비 %) : (중국) -3.8 (미국) -5.0 (아세안) 5.5 (EU) 3.9 (대만) 51.0
- (수입)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 급감이 전체 수입 감소를 주도했으며, 반도체장비·컴퓨터·반도체 등 IT 관련 품목은 증가하며 약보합세
 - * '25년 1~10월 품목별 수입 증가율(전년동기비 %) : (원유) -12.3 (천연가스) -8.9 (석탄) -26.3 (반도체장비) 25.6
- (수지) 대미 흑자 감소에도 대만과의 흑자 확대 및 산유국 적자 개선으로 양호한 수지 달성

■ (평가) 반도체·선박 주도로 역대 최대 실적 달성 기대

- 美 관세와 對中 경쟁력 약화로 양대 시장 수출이 감소했으나, 對EU·아세안·대만 등 제3국 수출 확대 및 차세대 산업·K-소비재 약진으로 전체 수출 선방

▣ 2025년 5대 특징 및 평가(요약)

① 반도체·선박 주도로 사상 최초 7,000억 달러 달성 기대

- 1~10월 수출 증가율(%) : (반도체) 17.8 (선박) 34.5 ■ 연도별 수출(억 달러) : ('23) 6,322 ('24) 6,836 ('25) 7,040

② 美 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수출 감소

- 연간 대미수출(%) : ('24) 10.4 → ('25.1~10) -5.0 ■ 1~10월 품목별 증가율 : (자동차) -15.9 (자동차부품) -6.4

③ 차세대·신성장 산업의 高성장세 지속

- 총수출 대비 8대 신산업 비중 사상 최초 20% 돌파 ■ 차세대반도체(14.1%), 항공우주(24.9%) 호조세

④ K-콘텐츠 연계 소비재의 약진

- 1~10월 수출 증가율(%) : (화장품) 12.2 (식품) 6.6 ■ 화장품 수출 비중은 대미가 대중을 사상 최초로 상회

⑤ 수출 다변화로 미·중 리스크 극복

- '25년 수출 증가국 수는 '24년 대비 12개국 증가한 135개국 ■ 반도체는 대만·베트남 등으로, 자동차는 유럽·중국으로 다변화

【 2026년 무역환경 및 수출입 전망 】

■ (무역환경) 세계 경제는 美 관세 파급, 통상 불확실성 심화, 주요국 성장 둔화 등으로 2025년 대비 성장세 소폭 둔화 예상

- 2026년 세계 경제는 美 관세 여파 및 중국 내수부진 지속으로 2.9~3.1% 성장에 그쳐 2025년 대비 둔화될 전망이며, 세계 교역량 증가율도 0.5%로 성장세 정체 예상
 - * 세계 경제 성장률('25^e→'26^p, %) : (IMF, 10월^p) 3.2→3.1 (OECD, 12월^p) 3.2→2.9
 - * 세계 교역 증가율(WTO 10월, '25^e→'26^p, %) : 2.4 → 0.5 ('25.4월 전망치 대비 -2.1%p)
-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 한국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구조적인 달러 수급 불균형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
 - * 환율 전망(블룸버그 6개 IB 전망치, 원/달러) : ('25.4Q) 1,448 ('26.1Q) 1,432 (2Q) 1,422 (3Q) 1,420 (4Q) 1,408
- 국제유가는 OPEC+ 및 비OPEC+ 산유국의 증산, 원유수요 증가세 둔화로 배럴당 50달러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EIA, '25.11월)
 - * 국제유가 전망(WTI기준, EIA, 달러/배럴) : ('25.4Q) 58.65 ('26.1Q) 50.30 (2Q) 50.68 (3Q) 52.00 (4Q) 52.00
- 美 보호무역주의 심화 및 관세 영향 본격화, 다극적 통상질서 전환, 경제안보·첨단기술 중심 新통상 이슈 부각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

■ (수출입 전망) 2026년 수출은 1.0% 증가한 7,110억 달러, 수입은 0.5% 증가한 6,330억 달러, 무역수지는 780억 달러 흑자 예상

- 반도체·무선통신기기·컴퓨터 등 IT 품목은 글로벌 수요 지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반면, 자동차는 높은 기저 및 해외생산 확대, 석유제품은 유가 하락으로 감소 전망
- 국제유가는 하락이 예상되나 반도체 수입 증가로 총수입 증가
-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2026년에는 올해보다 흑자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

▣ 2025년 및 2026년 수출입 전망

(단위 : 억 달러,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e | 2026년 ^p |
|--------------|------------------|-----------------|--------------------|--------------------|
| 수 출 (증가율) | 6,322 (-7.5) | 6,836 (8.1) | 7,040 (3.0) | 7,110 (1.0) |
| 수 입 (증가율) | 6,426 (-12.1) | 6,318 (-1.7) | 6,300 (-0.3) | 6,330 (0.5) |
| 수 지 | -104 | 518 | 740 | 780 |
| 무역규모 | 12,748 | 13,154 | 13,340 | 13,44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

| 품목 | 2024년 | 2025년 ^e | 2026년 ^p | 2026년 업황 전망 |
|---------|-----------------|--------------------|--------------------|---|
| 반도체 | 1,419 (43.9) | 1,700 (19.8) | 1,800 (5.9) | 빅테크의 AI 투자 확대 및 HBM4 양산으로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출이 증가하고, 범용 메모리도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세가 이어질 전망 |
| 자동차 | 708 (-0.1) | 719 (1.6) | 712 (-1.0) | 역대 최고 수준 실적 지속에 따른 기저 부담 및 해외생산 확대로 올해 대비 소폭 감소 전망 |
| 일반기계 | 512 (-4.1) | 468 (-8.6) | 481 (2.8) | 중동, ASEAN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원자재 가격·물류비 안정으로 소폭 반등 예상 |
| 석유화학 | 480 (5.0) | 426 (-11.3) | 400 (-6.1) | 중국 중심의 대규모 신증설 속에서 유가 하락 및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로 수출 지속 감소 |
| 석유제품 | 503 (-3.2) | 444 (-11.7) | 385 (-13.3) | 국제유가 하락 속 주요 석유제품 수요 부진, 글로벌 경쟁 가속 등으로 수출 물량 감소 |
| 철강 | 333 (-5.4) | 302 (-9.4) | 296 (-2.0) | 글로벌 수요 정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일본과 수출 경쟁 지속 등으로 감소 |
| 선박 | 256 (17.6) | 313 (22.4) | 296 (-5.4) | 2025년 선박 수출 급증에 따른 높은 기저로 소폭 감소가 예상되나, 조선 업황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 |
| 자동차부품 | 225 (-1.8) | 212 (-5.8) | 211 (-0.5) | 완성차의 미국 생산 확대, USMCA 개정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감소 |
| 무선통신 기기 | 172 (11.1) | 168 (-2.3) | 177 (5.4) | 폴더블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단가 상승으로 스마트폰 완제품 가격 인상 본격화 |
| 디스플레이 | 187 (0.9) | 172 (-8.0) | 177 (2.9) | IT 제품의 OLED 적용 확대, 스마트폰의 고부가가치화 등 우호적인 수출 여건으로 소폭 증가 |
| 컴퓨터 | 132 (76.7) | 127 (-3.8) | 137 (7.8) | AI 인프라 확대, 스토리지 수요 증가, 대용량 SSD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기업용 SSD 중심 수출 증가 |
| 섬유 | 105 (-4.1) | 98 (-6.7) | 100 (2.0) | 한한령 완화 기대, K-콘텐츠 파급력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고부가 의류 중심 성장 예상 |
| 가전 | 80 (0.4) | 72 (-10.0) | 73 (1.4) | AI 가전 보급 확대로 소폭 증가하나,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성장 둔화가 하방 요인 |

자료: 한국무역협회

I

2025년 수출입 동향 및 평가

01 총괄

■ 2025년 1~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5,792억 달러, 수입은 0.6% 감소한 5,228억 달러, 무역수지는 564억 달러 흑자

-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선박류,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
 - 13대 주력 수출품목 중 1~10월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선박류(34.5%), 반도체(17.8%), 자동차(0.9%) 등 3개 품목이며, 반도체를 제외할 시 1~10월 수출은 1.6% 감소
 - 최대 수출국인 미국(-5.0%)과 중국(-3.8%)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대만(51.0%), EU(3.9%), 아세안(5.5%) 등 여타 시장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
- (수입)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 모두 감소
 - * 품목별 수입증가율(전년동기비%, '25.1~10월) : (원유) -12.3 (천연가스) -8.9 (석탄) -26.3
 - 1~10월 총수입 대비 에너지 수입 비중은 20%를 하회하며 전년 동기 대비 2.7%p 감소
 - * 3대 에너지 수입 비중 : ('24.1~10월) 21.0% → ('25.1~10월) 18.3%, -2.7%p
- (수지) 1월 제외 흑자 기조를 지속하며 1~10월 누계 기준 2018년 이후 흑자 규모 최대
 -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 원유 수입국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는 축소, 대만, 아세안 등으로의 흑자 폭이 크게 확대

▣ 2025년 1~10월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 구분 | 2024년 | | | 2025년 | |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7~10월 | 1~10월 |
| 수출액 | 3,348 | 3,488 | 6,836 | 3,347 | 2,444 | 5,792 |
| (증가율) | (9.1) | (7.2) | (8.1) | (-0.02) | (5.7) | (2.3) |
| 수입액 | 3,119 | 3,199 | 6,318 | 3,069 | 2,159 | 5,228 |
| (증가율) | (-6.4) | (3.4) | (-1.7) | (-1.6) | (0.7) | (-0.6) |
| 무역수지 | 229 | 289 | 518 | 278 | 285 | 564 |

자료: 한국무역협회

02 수출 동향

■ 2025년 1~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5,792억 달러를 기록

- 1월 조업일 감소*에 따른 일시 수출 급감 이후 수출은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9월 수출이 12.6% 증가하면서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24.7월 이후 최고치)

* '24.1월 조업일수 24일, 일평균 수출액 22.8억 달러 → '25.1월 조업일수 20일, 일평균 수출액 24.6억 달러

◀ 2025년 월별 수출 동향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0월 |
| 금액 | 6,836 | 492 | 523 | 581 | 581 | 573 | 598 | 607 | 583 | 659 | 595 | 5,792 |
| (증가율) | (8.1) | (-10.1) | (0.4) | (2.7) | (3.5) | (-1.3) | (4.3) | (5.7) | (1.2) | (12.6) | (3.5) | (2.3) |

자료: 한국무역협회

- (**단가/물량**) 수출단가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석탄 및 석유제품 등 에너지 중심으로 하락세, 수출물량은 설·추석 연휴가 포함된 1월과 10월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상승세 유지

◀ 수출단가·물량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월비 %)



주 : 수출단가 = 수출금액/수출물량

자료 : 한국은행

◀ 품목별 수출단가·물량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비 %)

| 구분 | 수출단가 | 수출물량 |
|-------------|-------|------|
| 총지수 | -2.6 | 4.0 |
| 농림수산품 | 0.9 | 6.5 |
| 전기장비 | 0.7 | -1.6 |
| 기계및장비 | -0.3 | -5.9 |
| 금속가공제품 | -0.5 | -3.0 |
| 컴퓨터·전자·광학기기 | -0.6 | 11.7 |
| 운송장비 | -1.1 | 0.7 |
| 1차금속제품 | -1.4 | 4.0 |
| 화학제품 | -4.5 | 0.3 |
| 석탄및석유제품 | -10.4 | -0.9 |

주 : 2025년 1~10월 기준, 수출단가 = 수출금액/수출물량

자료 : 한국은행

- (**가공단계별**) 중간재(1.5%), 소비재(1.6%), 자본재(5.6%) 등 모든 가공단계별 수출 증가

◀ 가공단계별 수출 동향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비중 %, 비중 %p)

| 구분 | 2024년 | | | 2025년 1~10월 | | | (b-a)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a) | 금액 | 증가율 | 비중(b) | |
| 중간재 | 4,803 | (10.3) | (70.3) | 4,039 | (1.5) | (69.7) | (-0.5) |
| 소비재 | 1,014 | (3.1) | (14.8) | 857 | (1.6) | (14.8) | (-0.0) |
| 자본재 | 945 | (2.5) | (13.8) | 818 | (5.6) | (14.1) | (0.3) |
| 1차산품 | 36 | (-12.0) | (0.5) | 32 | (8.5) | (0.6) | (0.0) |
| 전품목 | 6,836 | (8.1) | (100.0) | 5,792 | (2.3) | (100.0) | (0.0) |

주 : 반올림으로 인해 보이는 비중 차이와 실제 비중 차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 13대 수출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선박류 수출은 증가, 그 외 10개 품목 수출은 감소

- **(반도체, 17.8%)** AI 중심의 견조한 수요와 공급 부족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큰 폭 증가
 - 고대역폭메모리(HBM), 서버향 D램 등 AI용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범용 메모리 감산 및 생산증료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전반적인 단가 상승이 동반
 - * D램 고정가(달러, DDR4 8Gb) : ('24.12월)1.35 ('25.3월)1.35 (6월)2.60 (9월)6.30 (10월)7.00
 - * 낸드 고정가(달러, MLC 128Gb) : ('24.12월)2.08 ('25.3월)2.51 (6월)3.12 (9월)3.79 (10월)4.35
- **(자동차, 0.9%)** 최대 수출시장인 북미지역으로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EU·중남미·중동 등 신흥지역의 친환경차 수출 증가로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2025년 1~10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15.9% 감소했으나, 전기차 제외 시 6.2% 감소에 그침
 - * 자동차 지역별 수출증가율('25.1~10월, yoy%) : (미국)-15.9, (EU)21.7, (중남미)11.6, (중동)3.7
 - 지역·품목별 수출증가율 : (EU·전기차)113.6, (중남미·하이브리드)265.4, (중동·하이브리드)32.7
- **(선박류, 34.5%)** 2022~2023년 다량 수주한 LNG운반선 및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선가 선박의 인도 본격화, 생산공정 안정화가 병행되며 전반적인 수출흐름 개선
 - * 신조선가 지수(지수, '88.1월 선가 100 기준) : ('22) 161.8 → ('23) 178.4 → ('24) 189.2 → ('25.9) 185.6
- **(일반기계, -9.3%)** 美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및 중국 부동산 시장 부진 영향으로 일반기계 품목 전반 수출 감소
 - * 對美 수출증가율('25.1~10월, yoy%) : (기초산업기계)-6.6 (산업기계)-13.8 (기계요소공구및금형)-7.7 (기타기계류)-48.4
 - * 對中 수출증가율('25.1~10월, yoy%) : (기초산업기계)-7.8 (산업기계)-14.0 (기계요소공구및금형)4.5 (기타기계류)-32.1
- **(석유제품, -11.2%)**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금액은 두 자릿수 감소
 - * 유가(브렌트유, 달러/배럴, 기간평균) : ('22)96.41 → ('23)82.10 → ('24)79.58 → ('25.1~10)70.68
- **(석유화학, -11.5%)**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수출 경쟁 심화로 수출 감소
 - * 中 에틸렌 설비 글로벌 비중(%) : ('22)21.0 → ('24)22.8 → ('25^e)24.9
 - * 中 합성수지 자급률(%) : ('22)90.3 → ('23)93.1 → ('24)97.5 → ('25^e)102.5
- **(철강, -8.1%)** 전세계적 수요 둔화, 철강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공급과잉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로 수출단가와 물량이 동반 감소
 - * 철강 수출단가(달러/톤) : ('22)1,407 → ('23)1,215 → ('24)1,116 → ('25.1~10월)1,030
- **(자동차부품, -5.8%)** 연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품목관세) 적용으로 최대 수출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등 수출이 전체적으로 감소
 - * '25.1~10월 국가별 자동차부품 수출(yoy, %) : (미국) -6.4 (멕시코) -10.3 (중국) -10.7 (브라질) -9.0

● **(평판디스플레이, -11.0%)** 美 관세조치에 따른 전방수요 감소 및 단가인하 압박으로 수출 부진

*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증가율(yoy%) : ('25.1Q)-6.0 (2Q)-21.5 (3Q)-5.8 (10월)-8.7

● **(무선통신기기, -2.0%)** 스마트폰(12.8%) 수출 선전에도 불구하고,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선통신기기 부품(-5.9%)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합계 수출은 소폭(-2.0%) 감소

* '25년 1~10월 무선통신기기 완제품 수출비중은 35.2%(스마트폰 22.6%), 부품 비중은 64.8%

● **(컴퓨터, -0.1%)**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SSD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인용 노트북·PC 및 프린터 수출이 큰 폭 감소하면서 전체 컴퓨터 수출은 0.1% 감소

* 품목별 수출증가율('25.1~10월, yoy%) : (전산기록매체)2.8 (개인용컴퓨터)-6.3 (휴대용컴퓨터)-36.5 (프린터)-16.4

● **(섬유류, -7.8%)** 상반기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소싱수요 관망세로 수출 감소

* 섬유류 수출증가율(yoy%) : ('25.1Q)-8.0 (2Q)-8.4 (3Q)-3.7 (10월)-16.9

● **(가전, -10.0%)**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을 중심으로 관세 정책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대형가전 교체수요 지연 등 영향으로 수출 부진

* 국가별 수출증가율('25.1~10월, yoy%) : (미국) -22.6 (중국) 8.8 (일본) -1.3 (베트남) 6.7 (멕시코) -0.7 (캐나다) -2.2

* 美 소매판매 증가율('25.1~8월, yoy%) : 전자·가전 -0.6, 가구 5.4, 외식 5.5, 전체 3.8

▣ 13대 주력 품목 수출 동향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비중 %, 비중 %p)

| 구분 | | 2024년 | | | 2025년 1~10월 | | | (b-a)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a) | 금액 | 증가율 | 비중(b) | |
| 수출 증가 (3개) | 반도체 | 1,419 | (43.9) | (20.8) | 1,354 | (17.8) | (23.4) | (2.6) |
| | 자동차 | 708 | (-0.1) | (10.4) | 596 | (0.9) | (10.3) | (-0.1) |
| | 선박류 | 256 | (17.6) | (3.8) | 269 | (34.5) | (4.6) | (0.9) |
| 수출 감소 (10개) | 일반기계 | 512 | (-4.2) | (7.5) | 389 | (-9.3) | (6.7) | (-0.8) |
| | 석유제품 | 503 | (-3.2) | (7.4) | 379 | (-11.2) | (6.6) | (-0.8) |
| | 석유화학 | 480 | (5.0) | (7.0) | 359 | (-11.5) | (6.2) | (-0.8) |
| | 철강 | 333 | (-5.4) | (4.9) | 256 | (-8.1) | (4.4) | (-0.5) |
| | 자동차부품 | 225 | (-1.8) | (3.3) | 178 | (-5.8) | (3.1) | (-0.2) |
| | 평판디스플레이 | 187 | (0.9) | (2.7) | 141 | (-11.0) | (2.4) | (-0.3) |
| | 무선통신기기 | 172 | (11.1) | (2.5) | 139 | (-2.0) | (2.4) | (-0.1) |
| | 컴퓨터 | 132 | (76.7) | (1.9) | 103 | (-0.1) | (1.8) | (-0.1) |
| | 섬유류 | 105 | (-4.1) | (1.5) | 80 | (-7.8) | (1.4) | (-0.2) |
| | 가전 | 80 | (0.4) | (1.2) | 61 | (-10.0) | (1.1) | (-0.1) |
| 총수출 | | 6,836 | (8.1) | (100.0) | 5,792 | (2.3) | (100.0) | (0.0) |

주 : 수출 증가·감소 구분별 '25년 1~10월 수출액 내림차순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국가/지역별) 1~10월 미국, 중국 수출은 감소, 아세안, EU, 대만 수출은 증가

- **(중국, -3.8%)**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분쟁 심화, 중국의 범용 메모리반도체 자급률 상승, 중국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대중국 수출 감소

* 한국은 고부가 메모리(HBM)로 전환, 범용 메모리(DDR4)는 중국 자체 생산 확대 → '25.1~10월 對中 반도체 수출 -3.5%
 * '25년 1~8월 중국의 대세계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

- **(미국, -5.0%)** 전방위적 관세 부과 조치로 대미 수출이 감소, 특히 상호관세(15%) 시행 직후 8월 대미 수출은 12.1% 감소하며 코로나 이후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20년 5월 이후 최저치)

- 美 빅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AI 투자로 반도체(24.4%) 수출은 선전중이나,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15.9%)의 수출 부진으로 총수출은 감소

* 對美 품목별 수출('25.1~10월, yoy%, 수출금액 순) : 자동차 -15.9, 반도체 24.4, 자동차부품 -6.4, 석유제품 4.7, 컴퓨터 -2.6

- **(아세안, 5.5%)** 말레이시아(10.3%), 필리핀(8.5%), 싱가포르(8.5%), 베트남(5.9%) 등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

* 아세안 10개국 중 8개국 수출 증가('25.1~10월, yoy%, 수출증가율 순) : 라오스 38.7, 브루나이 32.0, 말레이시아 10.3, 필리핀 8.5, 싱가포르 8.5, 베트남 5.9, 태국 2.9, 캄보디아 2.5, 미얀마 -5.6, 인도네시아 -12.1

- 품목별로는 반도체(36.6%), 선박류(28.9%), 철강판(1.4%), 반도체장비(19.8%) 등 수출이 크게 증가

- **(EU, 3.9%)** 자동차, 선박, 방산,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 對EU 품목별 수출('25.1~10월, yoy%, 수출금액 순) : 자동차 21.7, 선박류 17.9, 반도체 44.7, 무기류 45.8, 농약및의약품 -3.6, 자동차부품 -9.6, 합성수지 10.1, 철강판 -16.4

- 특히 폴란드는 무기류(45.6%) 수출이, 네덜란드는 반도체(423.2%)와 컴퓨터(101.4%)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對EU 수출증가세를 주도하였음

- **(대만, 51.0%)** 현지 그래픽처리장치(GPU) 가공을 위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對대만 수출은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를 중심으로 급등

* 對대만 품목별 수출('25.1~10월, yoy%, 수출금액 순) : 반도체 81.1, 반도체장비 48.5, 기구부품 26.5, 석유제품 -9.3, 레일및철구조물 -11.3, 자동차 0.5, 컴퓨터 71.5

- 2024년 對대만 수출이 68.3%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10월 기준으로도 수출이 51.0% 증가하면서 높은 상승세를 2년 연속 유지하는 중

▣ 주요 국가·지역별 수출 동향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비중 %p)

| 국가·지역명 | 2024년 | | | 2025년 1~10월 | | | (b-a)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a) | 금액 | 증가율 | 비중(a) | |
| 중국 | 1,330 | (6.6) | (19.5) | 1,058 | (-3.8) | (18.3) | (-1.2) |
| 미국 | 1,278 | (10.4) | (18.7) | 1,002 | (-5.0) | (17.3) | (-1.4) |
| 아세안 | 1,140 | (4.5) | (16.7) | 997 | (5.5) | (17.2) | (0.5) |
| (베트남) | 583 | (9.1) | (8.5) | 511 | (5.9) | (8.8) | (0.3) |
| EU | 681 | (-0.2) | (10.0) | 590 | (3.9) | (10.2) | (0.2) |
| 대만 | 340 | (68.3) | (5.0) | 398 | (51.0) | (6.9) | (1.9) |
| 홍콩 | 350 | (39.0) | (5.1) | 264 | (-9.9) | (4.6) | (-0.6) |
| 중남미 | 290 | (17.8) | (4.2) | 264 | (8.5) | (4.6) | (0.3) |
| 일본 | 296 | (2.1) | (4.3) | 236 | (-3.7) | (4.1) | (-0.3) |
| 싱가포르 | 182 | (-2.8) | (2.7) | 162 | (8.5) | (2.8) | (0.1) |
| 중동 | 197 | (4.7) | (2.9) | 161 | (-1.4) | (2.8) | (-0.1) |
| 인도 | 187 | (4.2) | (2.7) | 160 | (3.1) | (2.8) | (0.0) |
| 총계 | 6,836 | (8.1) | (100.0) | 5,792 | (2.3) | (100.0)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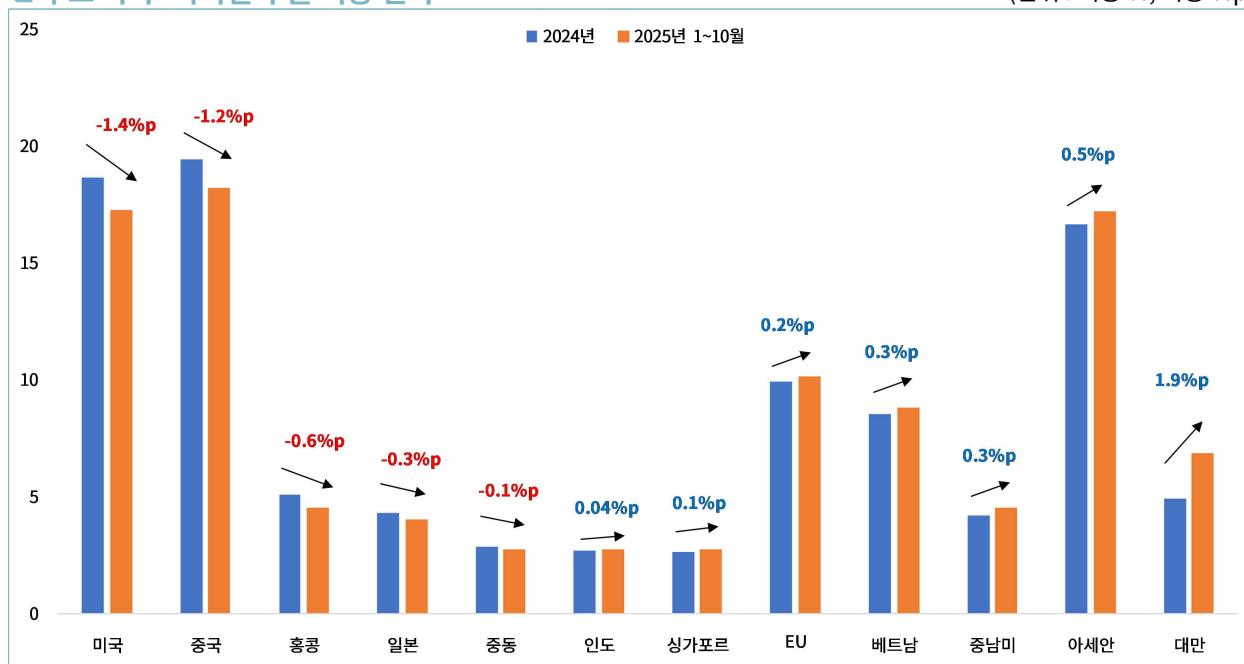
주 : 2025년 1~10월 수출액 내림차순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수출비중 변화) 1~10월 전년 동기 대비 對대만(+1.9%p) · 아세안(+0.5%p) · EU(+0.2%p)
수출비중은 확대, 미국(-1.4%p) · 對중국(-1.2%p) · 홍콩(-0.6%p) 수출비중은 감소

▣ 주요 국가·지역별 수출 비중 변화

(단위 : 비중 %, 비중 %p)



자료 : 한국무역협회

03 수입 동향

■ 2025년 1~10월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한 5,228억 달러 기록

- 1월(-6.3%)·5월(-5.3%) 수입은 큰 폭 감소했으나, 6월(3.4%)·9월(8.2%)은 증가하는 등 월별로 증감 교차

▣ 2025년 월별 수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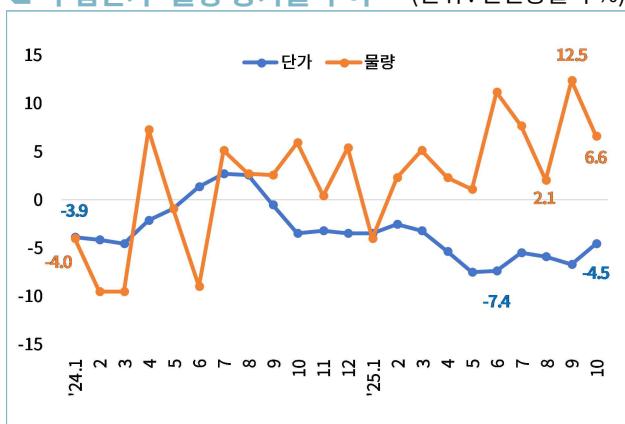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 | | | | | | 1~10월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
| 금액 | 6,318 | 511 | 483 | 533 | 532 | 503 | 507 | 542 | 518 | 564 | 535 | 5,228 |
| (증가율) | (-1.7) | (-6.3) | (0.2) | (2.3) | (-2.9) | (-5.3) | (3.4) | (0.6) | (-4.1) | (8.2) | (-1.5) | (-0.6) |

자료: 한국무역협회

- (단가/물량) 수입단가는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4개월 연속 하락세, 수입 물량은 1차 컴퓨터·전자·광학기기, 1차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지속 증가

▣ 수입단가·물량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월비 %)



주 : 수입단가 = 수입금액/수입물량
자료 : 한국은행

▣ 품목별 수입단가·물량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비 %)

| 구분 | 수입단가 | 수입물량 |
|-------------|-------|------|
| 총지수 | -4.9 | 4.1 |
| 농림수산품 | 2.6 | -1.2 |
| 음식료품 | -0.2 | 2.5 |
| 1차금속제품 | -0.9 | 8.3 |
| 화학제품 | -1.3 | -1.3 |
| 운송장비 | -1.3 | 5.0 |
| 금속가공제품 | -1.6 | 4.9 |
| 전기장비 | -2.2 | 7.1 |
| 컴퓨터·전자·광학기기 | -5.5 | 10.8 |
| 석탄및석유제품 | -8.6 | -5.3 |
| 광산품 | -11.3 | 0.5 |

주 : 2025년 1~10월 기준, 수입단가 = 수입금액/수입물량
자료 : 한국은행

- (가공단계별) 유가 하락으로 1차산품(-9.8%) 수입은 감소했으나, 자본재(9.6%)·소비재(1.3%)·중간재(0.2%) 수입 증가로 감소 폭 완화

▣ 가공단계별 수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비중 %, 비중 %p)

| 구분 | 2024년 | | | 2025년 1~10월 | | | (b-a)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a) | 금액 | 증가율 | 비중(b) | |
| 중간재 | 3,213 | (-1.7) | (50.9) | 2,671 | (0.2) | (51.1) | (0.2) |
| 1차산품 | 1,402 | (-4.2) | (22.2) | 1,075 | (-9.8) | (20.6) | (-1.6) |
| 자본재 | 858 | (3.6) | (13.6) | 759 | (9.6) | (14.5) | (0.9) |
| 소비재 | 817 | (-2.6) | (12.9) | 699 | (1.3) | (13.4) | (0.4) |
| 전 품목 | 6,318 | (-1.7) | (100.0) | 5,228 | (-0.6) | (100.0) | (0.0) |

주 : 반올림으로 인해 보이는 비중 차이와 실제 비중 차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 3대 에너지 수입은 감소한 반면, 반도체·자동차 등 非에너지 수입은 증가

- (에너지) 1~10월 원유(-12.3%), 천연가스(-8.9%), 석탄(-26.3%) 등 3대 에너지 수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며, 총수입 대비 에너지 수입 비중이 20%를 하회

* 3대 에너지 수입 비중 : ('24.1~10월) 21.0% → ('25.1~10월) 18.3%, -2.7%p

- 원유 및 석탄 가격은 지난해 대비 하락하였고,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했으나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의 유가 연동 비중이 높아 수입단가 상승 폭은 제한적

* 3대 에너지 가격('24.1~9월 → '25.1~9월, 전년동기비 %) : (브렌트유, 달러/배럴) : 81.8 → 69.9(-14.5%), (천연가스 TTF, 유로/MWh) : 31.7 → 38.4(21.0%), (석탄 뉴캐슬, 달러/미터톤) : 134.5 → 105.8(-21.3%)

- (에너지 외) 1~10월 3대 에너지를 제외한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

- 반도체(5.3%), 반도체장비(25.6%), 컴퓨터(16.5%) 등 IT 품목의 수입이 증가했으며, 하이브리드(10.9%), 전기차(63.5%) 등 자동차(3.8%) 수입도 하반기 들어 증가세 전환

* 자동차 수입증가율(MTI 741, 전년동월비%) : ('25.1분기)-8.0 (2분기)3.6 (3분기)20.1

- 반도체는 대중국 수입은 감소한 반면, 대만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

* 반도체 국가별 수입증가율('25.1~10월, 전년동기비%) : 대만 11.0, 중국 -0.8, 일본 3.2, 베트남 75.4, 싱가포르 11.8

▣ 품목별 수입 동향(수입 상위 품목)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비중 %, 비중 %p)

| 순위 | 품목명 | 2024년 | | | 2025년 1~10월 | | | (b-a)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a) | 금액 | 증가율 | 비중(b) | |
| 1 | 원유 | 853 | (-1.0) | (13.5) | 638 | (-12.3) | (12.2) | (-1.3) |
| 2 | 반도체 | 722 | (15.8) | (11.4) | 619 | (5.3) | (11.8) | (0.4) |
| 3 | 천연가스 | 293 | (-18.8) | (4.6) | 218 | (-8.9) | (4.2) | (-0.5) |
| 4 | 반도체제조용장비 | 223 | (6.5) | (3.5) | 215 | (25.6) | (4.1) | (0.6) |
| 5 | 석유제품 | 251 | (8.2) | (4.0) | 183 | (-13.2) | (3.5) | (-0.5) |
| 6 | 농약및의약품 | 163 | (-1.6) | (2.6) | 137 | (-0.2) | (2.6) | (0.0) |
| 7 | 컴퓨터 | 131 | (-0.4) | (2.1) | 126 | (16.5) | (2.4) | (0.3) |
| 8 | 자동차 | 136 | (-14.4) | (2.1) | 119 | (3.8) | (2.3) | (0.1) |
| 9 | 의류 | 130 | (2.9) | (2.1) | 108 | (-2.3) | (2.1) | (0.0) |
| 10 | 석탄 | 165 | (-18.3) | (2.6) | 103 | (-26.3) | (2.0) | (-0.6) |
| | 총계 | 6,318 | (-1.7) | (100.0) | 5,228 | (-0.6) | (100.0) | (0.0) |

주 : MTI 3단위 기준 2025년 1~10월 수입액 내림차순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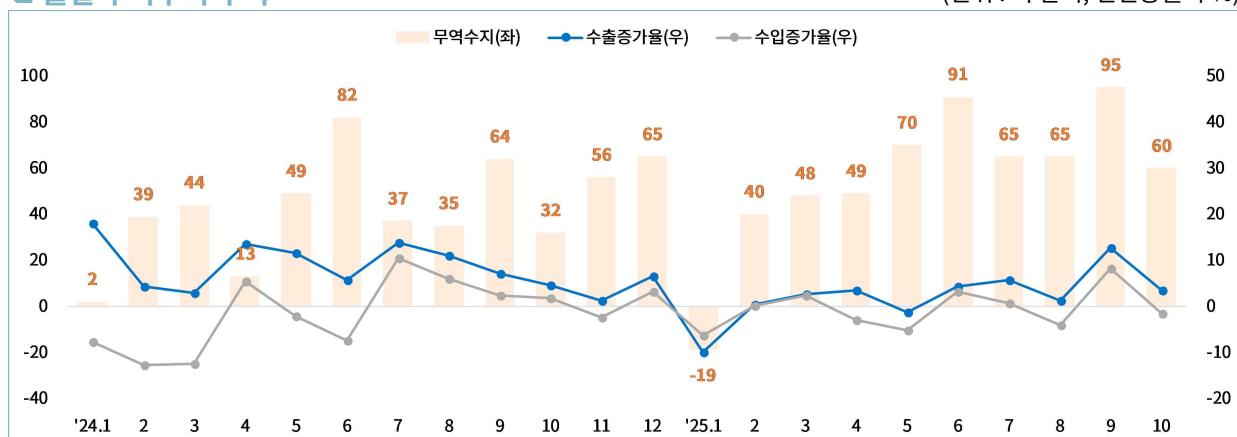
04 무역수지 동향

■ 1~10월 무역수지는 564억 달러 흑자로 10월 누계 기준 2018년 이후 최대 규모

- 1월 조업일수 감소(설 연휴, △4일)로 인한 일시적 적자 이후, 관세 영향 속에서도 하반기 수출이 선방하며 흑자 기조 지속

◀ 월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 억 달러, 전년동월비 %)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국가별) 대미 무역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46억 달러 감소한 반면 대만과의 흑자 규모는 크게 확대(+113억)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 주요 산유국과의 무역적자도 완화됨

◀ 10대 무역수지 적자국

(단위 : 억 달러)

| 국가명 | '24.1~10월 | '25.1~10월 | 변동폭 |
|-------|-----------|-----------|-----|
| 사우디 | -220 | -197 | 23 |
| 일본 | -147 | -167 | -21 |
| 호주 | -120 | -143 | -23 |
| 중국 | -61 | -105 | -44 |
| 독일 | -109 | -97 | 12 |
| UAE | -113 | -84 | 29 |
| 카타르 | -107 | -80 | 27 |
| 이라크 | -63 | -67 | -4 |
| 쿠웨이트 | -72 | -62 | 11 |
| 인도네시아 | -40 | -34 | 6 |
| 합계 | -1,053 | -1,036 | 16 |

◀ 10대 무역수지 흑자국

(단위 : 억 달러)

| 국가명 | '24.1~10월 | '25.1~10월 | 변동폭 |
|-------|-----------|-----------|-----|
| 미국 | 443 | 397 | -46 |
| 베트남 | 246 | 248 | 3 |
| 홍콩 | 274 | 234 | -41 |
| 대만 | 19 | 132 | 113 |
| 인도 | 103 | 106 | 3 |
| 폴란드 | 66 | 72 | 5 |
| 싱가포르 | 61 | 69 | 7 |
| 튀르키예 | 65 | 65 | 0 |
| 필리핀 | 47 | 64 | 17 |
| 라이베리아 | 37 | 45 | 9 |
| 합계 | 1,361 | 1,431 | 70 |

주 : 변동액은 '24.1~10월 무역수지 대비 증감(+,-)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 변동액은 '24.1~10월 무역수지 대비 증감(+,-)

자료: 한국무역협회

05 2025년 수출입 평가

① 반도체·선박 주도로 사상 최초 7,000억 달러 달성 기대

■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반도체·선박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초 7,000억 달러 달성 예상

- 미국발 관세조치 영향 등으로 '25.1~10월 수출은 반도체·선박을 제외할 경우 3.3% 감소
- 반도체(17.8%)와 선박(34.5%)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전체 수출 2.3% 성장을 견인
 - 반도체 수출 호조는 AI 투자 확대로 HBM 수요 증가, 범용 메모리 반도체 공급부족 등에 기인
 - * HBM 가격(Gartner, 달러/GB) : ('24.1Q)11.1 (2Q)11.3 (3Q)11.9 (4Q)13.9 ('25.1Q)13.8 (2Q)14.2 (3Q)14.4
 - * DDR4 8GB 가격(기획재정부, 달러) : ('24.1Q)1.8 (2Q)2.1 (3Q)2.0 (4Q)1.5 ('25.1Q)1.5 (2Q)2.9 (3Q)6.3

◆ 반도체·선박 외 수출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비 %) ◆ 연도별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비 %)

| 구분 | '23 | '24 | '25.1-10 |
|----------|-------|------|----------|
| 반도체 | -23.7 | 43.9 | 17.8 |
| 선박 | 19.9 | 17.6 | 34.5 |
| 반도체 외 | -3.7 | 1.5 | -1.6 |
| 반도체·선박 외 | -4.5 | 0.8 | -3.3 |
| 전품목 | -7.5 | 8.1 | 2.3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올해 수출이 단순 금액 증가에 그치지 않고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질적 성장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의미

- (반도체) 축적된 기술력·생산역량이 AI 수요 전환과 부합하며 단기 특수가 아닌 구조적 경쟁우위로 전환,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 반도체 수요가 기존 PC·스마트폰에서 AI 서버 중심으로 재편되며 HBM 등 초고성능 메모리 수요 폭증
 - * '23→'25년 글로벌 전방산업별 반도체 매출 (억 달러) : (스마트폰) 1,040 → 1,490 (PC) 890 → 920 (서버) 780 → 1,560
- (선박) 2022~2023년 다량 수주한 LNG운반선 및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선가 선박이 인도됨에 따라 전체 수출액 중 해당 선종의 비중이 각각 38.1%, 33.3%에 달할 전망
 - * '25 선종별 수출액 비중(%) : (LNG선)38.1, (컨테이너선)33.3, (제품운반선)8.9, (탱커)5.2, (LPG선)4.9, (해양플랜트)3.5, (기타)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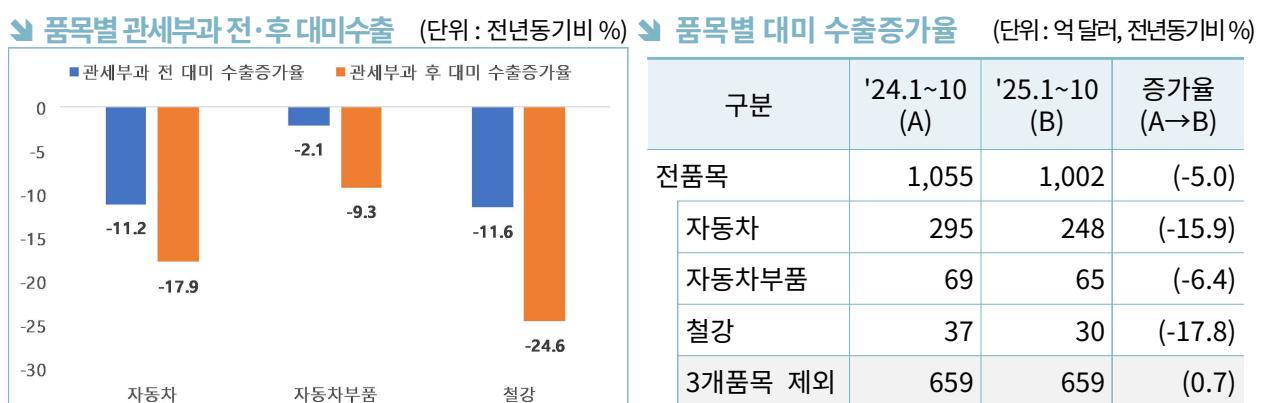
② 美 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수출 감소

■ 올해 대미 수출은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으로 이례적인 감소율을 기록

- 올해 8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직후 대미수출은 12.1% 감소하며 코로나19 이후 5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
 - '25년 1~10월 대미수출은 2016년 이후 9년만에 첫マイ너스 증가율을 기록
 - * 월별 대미수출 '20.5월 -29.4% → '25.8월 -12.1%, 연간 대미수출 '16년 -4.8% → '25.1~10월 -5.0%

■ 특히 자동차·차부품·철강 등 고율의 타겟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급감했으며, 해당 품목을 제외할 시 올해 대미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올해 232조 타겟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4월 25%), 자동차부품(5월 25%), 철강(3월 25%, 6월 50%)의 대미 수출은 관세부과 이전 대비 관세부과 이후에 더욱 가파르게 감소
- 올해 1~10월 대미 수출은 5.0% 감소했으나, 타겟관세 대상 품목이었던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을 제외할 시 대미 수출은 0.7% 증가하며 보합세 유지



■ 다만 우리 기업이 EU, 아세안, 대만 등 제3국으로 수출을 전환함으로써 대미 수출 부진의 영향을 완화하였고, 한·미 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 요인

- 올해 대미 수출 감소(-5.0%)에도 불구하고, EU(3.9%), 아세안(5.5%), 대만(51.0%) 등 신흥 시장으로의 수출 전환을 통해 전체 수출은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했음
- 또한 이번 한미협상의 결과로 자동차관세는 25% → 15%, 반도체는 최소 대만과 동등한 수준을 적용받는 등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된 점 또한 긍정적인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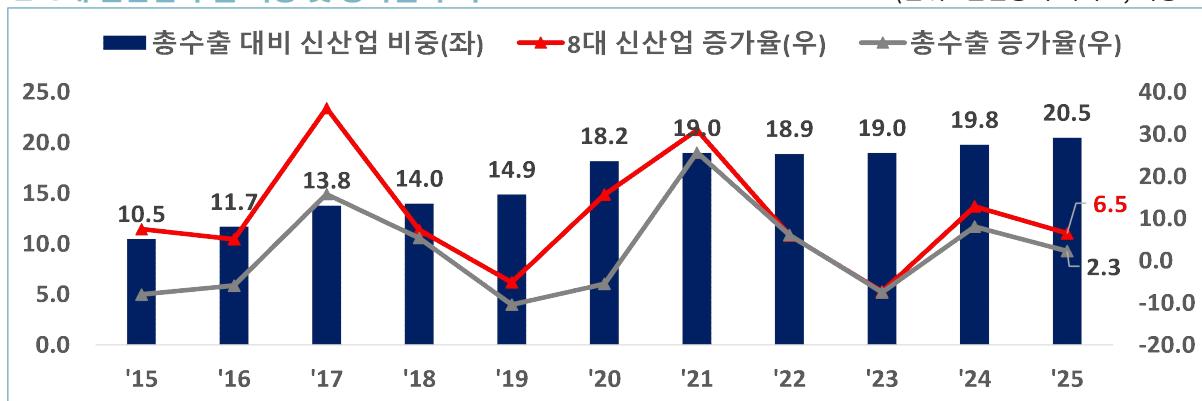
③ 차세대·신성장 산업의 高성장세 지속

■ 8대 신산업¹⁾ 수출은 2025년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하며 한국 수출의 질적 성장을 주도

- 총수출은 2.3% 증가에 그친 반면, 8대 신산업은 6.5% 성장하며 수출을 견인
- 총수출 대비 8대 신산업 비중은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하며 2025년 1~10월 사상 처음 20% 돌파

▣ 8대 신산업 수출 비중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 대비%, 비중%)



주 : 2025년은 1~10월 수치

자료 : 한국무역협회

- 8대 신산업 수출은 대중국 비중이 2024년 18.0%에서 2025년 13.2%로 4.8%p 감소한 반면, 대만(+8.7%p), 베트남(+1.0%p) 등으로 비중이 확대되며 미래 성장동력 분야 시장 다변화 진전
- 차세대반도체(14.1%), 항공우주(24.9%) 등 고부가가치 품목이 수출 호조세를 시현

▣ 8대 신산업 국가별 수출비중 변화

(단위 : 비중%, 비중변화%p)

| 국가명 | 2024년 | | 2025년 | | 변화 (b-a) |
|------|-------|-------|-------|-------|-------------|
| | 수출액 | 비중(a) | 수출액 | 비중(b) | |
| 대만 | 197 | 14.6 | 275 | 23.2 | 8.7 |
| 베트남 | 207 | 15.3 | 193 | 16.2 | 1.0 |
| 중국 | 244 | 18.0 | 157 | 13.2 | -4.8 |
| 홍콩 | 185 | 13.7 | 110 | 9.3 | -4.4 |
| 미국 | 149 | 11.0 | 93 | 7.8 | -3.2 |
| 싱가포르 | 37 | 2.7 | 38 | 3.2 | 0.5 |

주 : '25.1~10월 수출 비중 순

자료 : 한국무역협회

▣ 8대 신산업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 품목 | '24년 | | '25년 1~10월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차세대반도체 | 787 | (34.1) | 728 | (14.1) |
| 바이오헬스 | 151 | (13.0) | 133 | (7.8) |
| 차세대디스플레이 | 139 | (-1.4) | 109 | (-6.5) |
| 에너지신산업 | 82 | (16.6) | 59 | (-13.4) |
| 전기차 | 119 | (-27.6) | 95 | (-7.3) |
| 첨단신소재 | 33 | (6.4) | 18 | (-36.1) |
| 항공우주 | 35 | (-2.7) | 39 | (24.9) |
| 로봇 | 7 | (2.9) | 6 | (-7.7) |
| 8대 신산업 전체 | 1,354 | (12.9) | 1,186 | (6.5) |

주 : '25.1~10월 수출금액 순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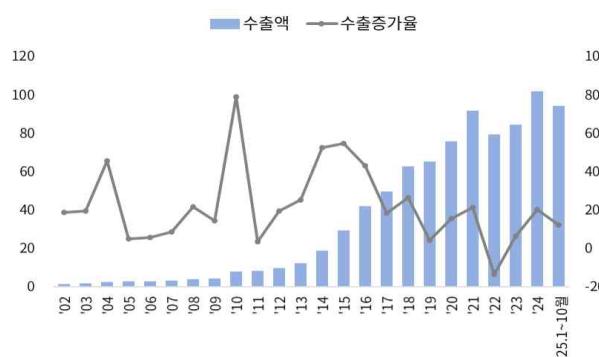
1)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디스플레이, 에너지신산업, 전기차, 첨단신소재, 항공우주, 로봇

④ K-콘텐츠 연계 소비재의 약진

■ K-뷰티는 대중 편중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다변화 성공

- 2025년(1~10월)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한 9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 대상 지역도 다변화되며 K-뷰티의 전 세계적 입지가 강화
 - 과거 중국 내 한류 열풍으로 대중 화장품 수출 비중이 53.2%까지 확대('21년)되었으나, 올해는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사상 최초로 대중 수출을 상회
 - 북미 외에도 아시아, 유럽, 중동 등 여러 권역의 국가로도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
- * 국가별 화장품 수출증가율(yoy%, '25.1~10월) : (中) -18.7 (美) 18.0 (日) 6.8 (홍) 27.5 (폴) 112.3 (UAE) 59.1

▣ 한국의 화장품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비중 %) ▶ 한국의 국가별 화장품 수출비중 추이 (단위 : 비중 %)



| 순위 | 국가명 | '15(a) | '20 | '25(b) | (b-a) |
|----|-----|--------|------|--------|-------|
| 1 | 미국 | 8.2 | 8.4 | 19.8 | 11.6 |
| 2 | 중국 | 40.5 | 50.3 | 18.3 | -22.1 |
| 3 | 일본 | 4.7 | 8.4 | 9.6 | 4.9 |
| 4 | 홍콩 | 23.5 | 9.4 | 6.1 | -17.4 |
| 5 | 베트남 | 1.8 | 3.5 | 4.1 | 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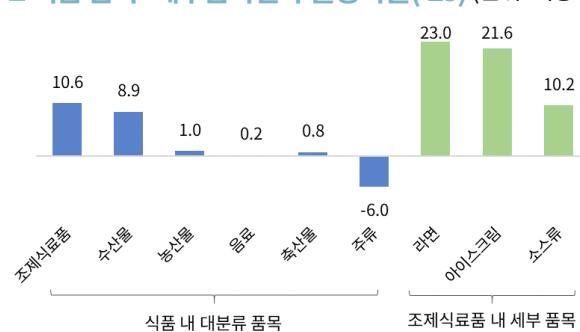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국가는 '25년(1~10월) 수출액 순, '25년은 1~10월 누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간편 섭취가 가능한 가공식품(조제식료품) 중심으로 K-푸드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

- 올해(1~10월) 한국의 식품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86억 달러로, K-콘텐츠와 SNS 노출로 인기가 높아진 라면,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이 수출을 견인
 - * '25.1~10월 식품 품목별 수출비중(%) : (조제식료품) 43.4 (수산물) 25.1 (농산물) 17.7 (음료) 7.8 (축산물) 2.6 (주류) 3.4
 - 가공식품 수출은 기존 아시아 외에도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로도 크게 증가

▣ 식품 품목·세부품목별 수출증가율('25) (단위 : 비중 %) ▶ 대륙별 조제식료품 수출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비%)



주 : '25년은 1~10월 누계
자료 : 관세청

| 순위 | 대륙명 | '24 수출액 | '25.1~10월 수출액 | 증가율 |
|----|------|---------|---------------|--------|
| 1 | 아시아 | 2,204 | 2,024 | (11.8) |
| 2 | 북미 | 994 | 916 | (11.9) |
| 3 | 유럽 | 549 | 493 | (6.9) |
| 4 | 대양주 | 176 | 151 | (2.6) |
| 5 | 중동 | 93 | 78 | (1.4) |
| 6 | 중남미 | 59 | 57 | (18.6) |
| 7 | 아프리카 | 16 | 15 | (11.8) |

주 : 대륙은 '25년(1~10월) 수출액 순
자료 : 한국무역협회

⑤ 수출 다변화로 미·중 리스크 극복

■ 우리 수출은 전통적 주력 시장 비중은 줄어든 가운데 신흥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시장 다변화에 성과를 거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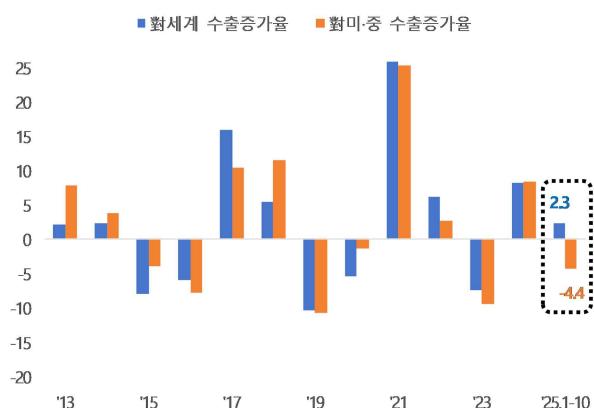
- 우리 최대 수출시장인 미·중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지만, 유럽·아세안·대만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특정국 수출 집중도가 완화
 - 수출 다변화 지수(HHI)^{*}는 2024년 917.9에서 2025년 1~10월 844.2로 하락
 - * 수출의 국가별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분산, 10,000에 가까울수록 집중을 의미
- 2025년 1~10월 중 수출이 증가한 국가수 135개국으로, 지난해(123개국) 대비 12개국 증가
 - 2024년(8.1%)의 성장보다 2025년은 성장이 소폭 둔화되었음에도, 수출이 증가한 국가 수가 확대되며 특정 시장 의존도가 낮아지고 수출기반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
- 2013년부터 대세계 수출증가율과 對美·對中 합계 수출증가율은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 왔으나, 2025년 1~10월 처음으로 디커플링 발생

■ 주력 품목은 기존 주력시장 부진에도 신시장 개척으로 수출 증가세를 유지

- 대중 반도체 수출은 중국의 자립도 상승으로 감소했으나, 말레이시아·대만·베트남 등 對아시아 주요국 수출이 확대되며 전체 반도체 수출은 증가
- 대미국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美관세로 올해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유럽·중앙아시아 등 지역으로 다변화에 성공하며 부진을 상쇄

◆ 對세계 vs 對미·중 수출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5.1~10월 반도체·자동차 7대 수출국 증가율 비교

(단위 :전년동기비%)

| 순위 | 반도체 | | 자동차 | |
|-----|-------|---------|--------|---------|
| | 국가 | 증가율 (%) | 국가 | 증가율 (%) |
| 1 | 말레이시아 | (99.3) | 키르기스스탄 | (106.8) |
| 2 | 대만 | (81.1) | 독일 | (61.7) |
| 3 | 베트남 | (35.1) | 카자흐스탄 | (33.6) |
| 4 | 싱가포르 | (28.2) | 영국 | (9.1) |
| 5 | 미국 | (24.4) | 캐나다 | (4.7) |
| 6 | 중국 | (-3.5) | 호주 | (-2.3) |
| 7 | 홍콩 | (-14.6) | 미국 | (-15.9) |
| 전세계 | | (17.8) | 전세계 | (0.9) |

주: '25.1~10월 수출 상위 7개국 기준, 순위는 2025년 1~10월 수출 증가율 순

자료 : 한국무역협회

II

2026년 무역·통상환경 전망

01 세계 경제

■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9~3.1%로 예상되어 2025년 대비 성장세 소폭 둔화

- 美 관세 영향이 지연되며 2025년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2026년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선진국) 투자 및 무역 여건 불확실성으로 인해 1.6% 수준의 완만한 성장을 보일 전망

- (미국) 1.7~2.1% 성장할 전망으로, 금리 인하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정책 불확실성 및 노동시장 약화가 성장세를 저해할 것으로 예상

* 美 실업률(美노동통계국, %) : ('25.1월) 4.0 (2월) 4.1 (3월) 4.2 (4월) 4.2 (5월) 4.2 (6월) 4.1 (7월) 4.2 (8월) 4.3 (9월) 4.4

- (유로존) 실질임금 상승^{*}으로 가계소비는 확대되겠으나 유로화 절상 및 수출 성장세 둔화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1.1~1.2%)을 보일 전망

* 유로존 가계 실질임금지수(Eurostat, 2010=100) : ('24.3Q) 112.1 ('24.4Q) 112.3 ('25.1Q) 112.4 ('25.2Q) 113.0

■ (신흥국) 중국 등 주요국 성장 동력 약화에 따라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중국) 미국의 고율 관세에도 수출은 비교적 견고한 양상이나 부동산 시장 위축 및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4% 초반대(4.2~4.4%)로 성장 동력 약화

* 中부동산개발투자증가율(中國기통계국, YTD) : ('25.1~5월) -10.7 (6월) -11.2 (7월) -12.0 (8월) -12.9 (9월) -13.9 (10월) -14.7

* 中소매판매 증가율(中國기통계국, 전년동월비%) : ('25.5월) 6.4 (6월) 4.8 (7월) 3.7 (8월) 3.4 (9월) 3.0 (10월) 2.9

- (인도) 강력한 내수 및 세제 개편, 인플레이션 둔화를 기반으로 6.2%의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 (멕시코) 미국발 관세 충격이 당초 예상보다 제한적으로 나타나, 관세 인상 이전 수준의 경제성장률(1.2~1.5%)을 회복할 전망

* 멕시코대미수출증가율(전년동월비%) : ('25.1월) 9.6 (2월) -0.8 (3월) 8.9 (4월) 5.1 (5월) -0.1 (6월) 14.6 (7월) 3.6 (8월) 7.1 (9월) 11.9

▣ 2026년 세계경제성장을 전망

(단위: 전년비%, %p)

| 구분 | IMF | | | | OECD | | | |
|------|------|-------------------|-------------------|-------------------|------|-------------------|-------------------|-------------------|
| | 2024 | 2025 ^p | 2026 ^p | 조정폭 ('25.7월대비) | 2024 | 2025 ^p | 2026 ^p | 조정폭 ('25.9월대비) |
| 전 세계 | 3.3 | 3.2 | 3.1 | 0.0 | 3.3 | 3.2 | 2.9 | 0.0 |
| 선진국 | 1.8 | 1.6 | 1.6 | 0.0 | - | - | - | - |
| 미국 | 2.8 | 2.0 | 2.1 | 0.1 | 2.8 | 2.0 | 1.7 | 0.2 |
| 유로존 | 0.9 | 1.2 | 1.1 | -0.1 | 0.8 | 1.3 | 1.2 | 0.2 |
| 일본 | 0.1 | 1.1 | 0.6 | 0.1 | -0.2 | 1.3 | 0.9 | 0.4 |
| 캐나다 | 1.6 | 1.2 | 1.5 | -0.4 | 1.0 | 1.1 | 1.3 | 0.1 |
| 신흥국 | 4.3 | 4.2 | 4.0 | 0.0 | - | - | - | - |
| 중국 | 5.0 | 4.8 | 4.2 | 0.0 | 5.0 | 5.0 | 4.4 | 0.0 |
| 인도 | 6.5 | 6.6 | 6.2 | -0.2 | 6.5 | 6.7 | 6.2 | 0.0 |
| 멕시코 | 1.4 | 1.0 | 1.5 | 0.1 | 1.4 | 0.7 | 1.2 | -0.1 |

자료: IMF('25.10월), OECD('25.12월)

■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2026년 세계 상품교역은 0.5% 확대에 그칠 전망(WTO)

- 관세 영향 확대 및 조기 선적 효과 소멸에 따라 2026년 무역 성장 둔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수출은 중남미(-1.0%), 수입은 북미(-5.8%) 지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

▣ WTO 세계 상품교역량 추이 및 전망

(단위: 전년비%, %p)

| 구분 | 2023 | 2024 | 2025 ^p | | 2026 ^p | |
|------|------|------|-------------------|--------------------|-------------------|--------------------|
| | | | 전망 ('25.10월) | 조정폭 ('25.4월 대비) | 전망 ('25.10월) | 조정폭 ('25.4월 대비) |
| 전 세계 | -0.9 | 2.8 | 2.4 | 2.6 | 0.5 | -2.1 |
| 수출 | 북미 | 3.6 | 2.3 | -3.1 | 9.5 | -1.0 |
| | 중남미 | 2.4 | 6.2 | 2.4 | 1.8 | -1.9 |
| | 유럽 | -2.9 | -1.7 | 0.7 | -0.3 | 2.0 |
| | 아프리카 | 5.7 | 1.3 | 5.3 | 4.7 | 0.0 |
| | 중동 | 8.1 | 3.7 | 2.0 | -3.3 | -0.9 |
| | 아시아 | 0.2 | 8.0 | 5.3 | 3.7 | 0.0 |
| 수입 | 북미 | -2.2 | 4.7 | -4.9 | 4.7 | -5.8 |
| | 중남미 | -4.0 | 6.0 | 8.8 | 3.8 | -0.6 |
| | 유럽 | -4.9 | -2.3 | 2.4 | 0.6 | -1.9 |
| | 아프리카 | 2.6 | 2.6 | 11.8 | 5.4 | 5.4 |
| | 중동 | 8.6 | 11.8 | 3.7 | -2.6 | 1.8 |
| | 아시아 | -0.7 | 5.1 | 5.7 | 4.1 | 2.7 |

주: 상품교역량(Merchandise Trade Volume) 기준

자료: WTO('25.10월)

02 환율

■ 달러화는 美 연준의 금리 인하로 약세를 전망하나, 수요 지속으로 약세 폭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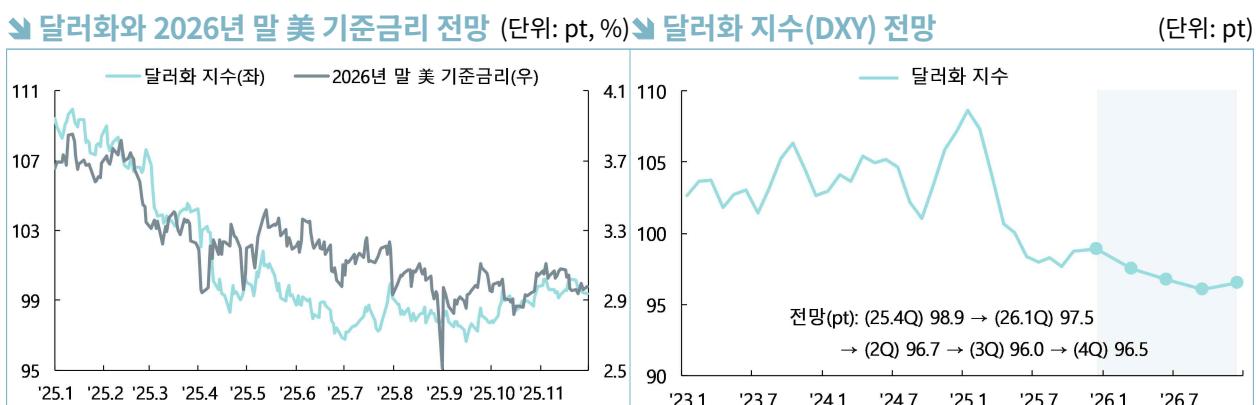
- 美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양적긴축 중단, 파월 연준 의장 임기 만료,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 등이 맞물리며 달러화 지수(DXY)는 2026년 말 96.5pt까지 하락 예상

* ISM 제조업/서비스업 PMI 고용지수(기준선 = 50, 하회 시 수축): ('25.1월) 50.3/52.3 → (10월) 46.0/48.2

- 다만, 투자 세제 혜택^{*} 속 상대적으로 견고한 美 경기^{**}, 美 정부의 對美 투자 유도 등에 따른 달러화 자산 수요가 지속되며 약세 폭은 제한적일 전망

* 美 감세법안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설비·R&D 투자비를 당해 전액 세액공제해 투자 촉진

** 美/유로 경제 성장을 전망(Bloomberg, 2025.12.1., %): 2025년 1.9/1.4 → 2026년 1.9/1.1



자료: Bloomberg(2025.12.1.)

자료: Bloomberg(2025.12.1.)

■ 엔화, 유로화 및 위안화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강보합 국면에 머물 전망

- (엔화) 인플레이션 압력 속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및 유동성 축소^{**}로 엔화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나, 신임 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속에 강세폭은 제한적일 전망

* 일본은행 기준금리 전망(Bloomberg, 2025.12.1.): 2025년 말 0.75% → 2026년 말 1.0%

** 일본은행은 '25.9월 금정위에서 보유 중인 ETF·REIT('25.3월 기준 시가평가 70조엔·7,000억엔) 매각 결정



자료: Bloomberg(2025.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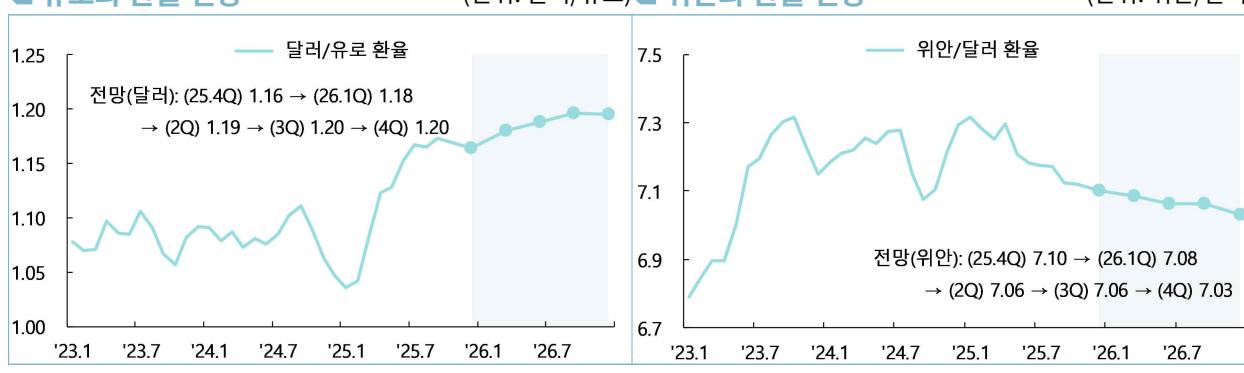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2025.12.1.)

- (유로화) 고령화와 저성장,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재정 건전성 우려 등 유로존의 구조적인 문제에도 ECB의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가능성으로 강보합 예상
- (위안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은 약세 요인이나 정부의 경기부양 기대 등으로 강세 전망

▶ 유로화 환율 전망

(단위: 달러/유로) ▶ 위안화 환율 전망

(단위: 위안/달러)



자료: Bloomberg(2025.12.1.)

자료: Bloomberg(2025.12.1.)

■ 원/달러 환율은 국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 對美 3,500억 달러 투자에 따른 달러화 구조적 유출 등으로 2026년에도 1,400원 내외 수준 유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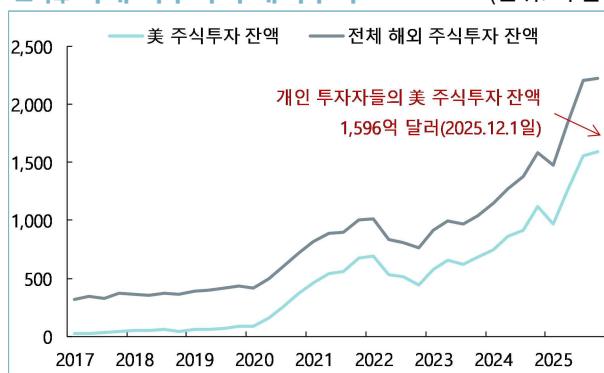
- 단,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반도체 호조 지속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단은 제한될 예상

* 26개국 국채가 편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로 '26.4월 편입 후 약 1년 간 500~600억 달러 자금 유입 전망

▶ 韓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

(단위: 억 달러) ▶ 원/달러 환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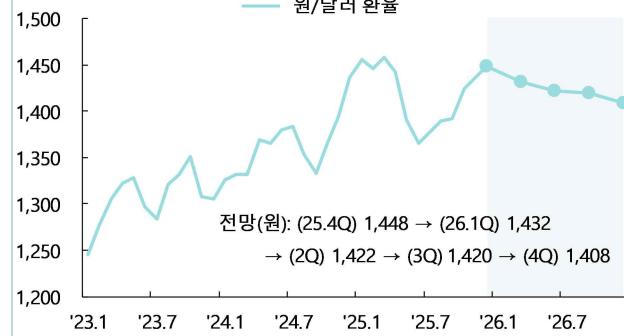
(단위: 원)



자료: 한국예탁결제원(2025.12.1.)

원/달러 환율 전망

(단위: 원)



주: '25.4분기 환율을 1,420원 이상 전망한 IB(6개 사)의 전망치
자료: Bloomberg(2025.12.1.), ECOS

▶ 2026년 원/달러 환율 결정의 주요 변수

원화 강세/달러 약세 요인

- 미국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연준 금리 인하
-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및 유동성 축소 기조 지속
- 관세 협상 진전 및 반도체 사이클 호조 장기화
- 국채 WGBI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원화 약세/달러 강세 요인

- 견고한 미국 경기와 달러화 자산 수요 지속
- 일본 총리의 확장적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
- 韓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 주요국 재정 건전성 우려 빈도 증가

03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 (원유) 수요 정체 속 공급 증가로 인해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유가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 (수요) 거시경제 둔화, 전기차 확대, 전력 부문 석유 대체 가속화 등으로 인해 뚜렷한 수요 반등 요인이 부재함

*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EIA, b/d) : ('25년) +100만 → ('26년) +11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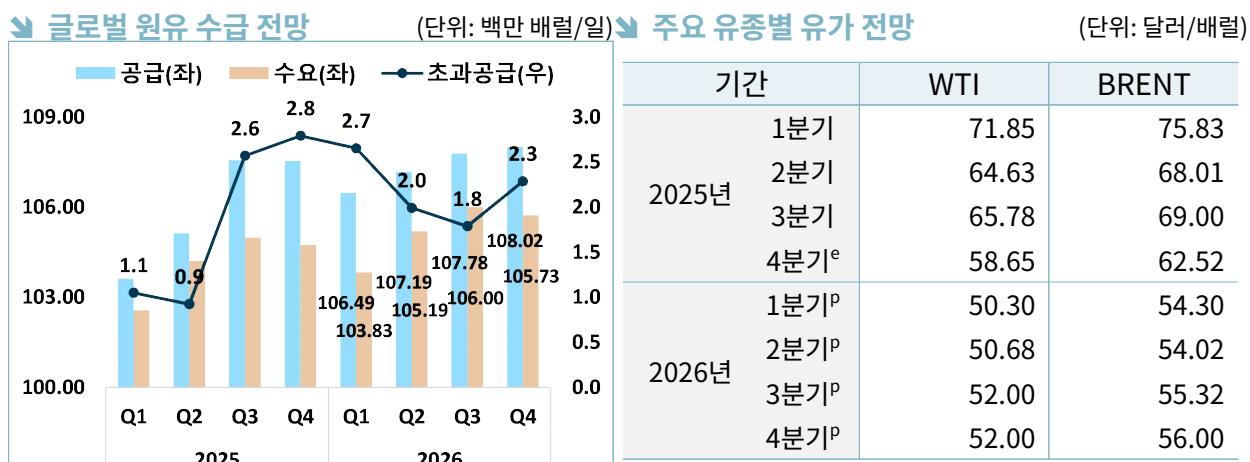
- (공급) OPEC+ 및 비OPEC+ 산유국의 제한적인 증산이 이어져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원유 공급 전망(EIA, b/d) : ('25년) +280만 → ('26년) +140만

** OPEC+는 내년 공급 과잉을 우려하여 '26년 1분기 증산 중단 결정(11/30)

- (유가) 공급과잉^{*}이 지속되어 내년 상반기에는 배럴당 \$50 초중반으로 하락할 전망(브렌트유 기준)

* 글로벌 원유 재고 전망(EIA, b/d) : ('25년) +180만 → ('26년) +220만



자료: EIA('25. 11월)

자료: EIA('25. 11월)

■ (비철금속) 비철금속별 수급 불균형으로 품목별 가격 흐름이 엇갈리는 가운데, 글로벌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는 가격 변동성 확대 및 단기적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구리) 전력망 확충 및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칠레·인도네시아·민주콩고 등 광산의 생산 차질로 공급 부족 우려 심화
- (알루미늄) 중국의 생산 제한과 러시아산 알루미늄의 시장 퇴출로 공급이 제약되는 반면, 구리 대체재로서 자동차·신재생 에너지 인프라·AI 데이터센터發 수요가 증가하여 공급 부족 우려
- (니켈) 세계 1위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중심의 증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테인리스 스틸용

수요는 견조하지만 배터리용 수요 둔화로 인해 가격 회복세는 제한적일 전망

- (아연) 2026년에는 신규·재가동 광산의 증산으로 공급 증가가 예상되며, 글로벌 제조업 둔화와 중국의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로 인한 가격 약보합세 전망

▣ 비철금속 가격 지수 추이



주 : 구리, 알루미늄, 니켈, 아연, 납 선물가격을 기준으로 한
지수 ('25. 12. 1. 조회 기준)
자료: Bloomberg

▣ 주요 비철금속 가격 전망

| 구분 | 2025 | | | | 2026 | | |
|------|--------|--------|--------|-----------------|-----------------|-----------------|-----------------|
| | 1Q | 2Q | 3Q | 4Q ^e | 1Q ^p | 2Q ^p | 3Q ^p |
| 구리 | 9,409 | 9,464 | 9,863 | 10,500 | 10,500 | 10,500 | 10,500 |
| 알루미늄 | 2,624 | 2,460 | 2,620 | 2,700 | 2,750 | 2,750 | 2,713 |
| 니켈 | 15,787 | 15,366 | 15,223 | 15,282 | 15,500 | 15,875 | 16,000 |
| 아연 | 2,873 | 2,662 | 2,823 | 2,900 | 2,900 | 2,800 | 2,750 |

주: 주요 IB 전망치의 중간값('25. 12. 1. 조회 기준)
자료: Bloomberg

■ (곡물) 2026년 글로벌 곡물 시장은 전반적인 공급 안정화 기조 속 품목별 수급 여건과 신규 수요 변수에 따른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 상존

- 세계 곡물 생산량은 미국의 사상 최대 옥수수 작황, 호주·EU의 소맥 생산 호조, 남미의 대두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할 전망
- 단, 미·중 간 무역 분쟁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 또는 올해 말·내년 초 예상되는 라니냐로 인한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제 곡물 가격은 전망치를 상회할 수 있음

▣ 세계 곡물 생산량 및 재고량 전망

| 구분 | 품목 | (단위 : 백만 톤) | | |
|-----------|-----|-------------|--------|--------|
| | | '23/24 | '24/25 | '25/26 |
| 생산량 | 옥수수 | 1,231 | 1,231 | 1,286 |
| | 소맥 | 792 | 801 | 829 |
| | 대두 | 396 | 427 | 422 |
| 기밀 재고량 | 옥수수 | 316 | 292 | 281 |
| | 소맥 | 271 | 261 | 271 |
| | 대두 | 115 | 123 | 122 |

자료 : 미 농무부(USDA, '25. 11월)

▣ 주요 곡물 가격 전망

| 구분 | 2025 | | | | 2026 | | |
|-----|-------|-------|-------|-----------------|-----------------|-----------------|-----------------|
| | 1Q | 2Q | 3Q | 4Q ^e | 1Q ^p | 2Q ^p | 3Q ^p |
| 옥수수 | 472 | 452 | 402 | 426 | 430 | 450 | 450 |
| 소맥 | 555 | 534 | 521 | 520 | 540 | 555 | 560 |
| 대두 | 1,024 | 1,044 | 1,012 | 1,055 | 1,080 | 1,133 | 1,140 |

주: 주요 IB 전망치의 중간값('25. 12. 1. 조회 기준)

자료: Bloomberg

04 통상환경

■ 미국發 자국중심적 보호무역주의 심화 및 고관세 정책의 영향 본격화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우선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으로 자국 중심적 통상정책이 확산되며 보호무역주의가 심화
 -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공급망·기술 패권·경제 안보 등 핵심 아젠다를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양국 간 제한적 무역 합의가 있더라도 긴장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EU) 철강 관세 상향(25→50%)과 무관세 쿼터 축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을 시행
 - (일본) 한국·중국·대만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
 - (인도) 중국 BYD 투자를 거부하는 등 자국 시장 및 산업 보호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위와 같은 추세로 인해 트럼프 1기처럼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Harmful Trade Policy Measures)

| 연도 | 트럼프 1기 행정부 | | | | 바이든 행정부 | | | |
|------------|------------|-------|-------|-------|---------|-------|-------|-------|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건수 | 2,867 | 3,255 | 3,133 | 6,059 | 5,609 | 5,951 | 5,243 | 4,404 |
| 전년비 증감률(%) | 2.7 | 13.5 | -3.7 | 93.4 | -7.4 | 6.1 | -11.9 | -16.0 |

자료: Global Trade Alert

- 미국의 고관세 정책 파급 효과가 2026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아직 기업이 관세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감내하고 있으나 이는 점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²⁾
 - 골드만삭스는 올해 8월 기준 관세 비용을 美 기업·소비자·해외 수출자가 각각 51%, 37%, 9%씩 부담하고 있으나 점차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올해 말 소비자 55%, 기업 22%, 해외 수출자 18%로 변동할 것이라 분석⁴⁾
- 법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관된 관세 정책을 이어 나갈 가능성

2) Hufbauer & Zhang(2025.09.16.), "Who is paying for Trump's tariffs? So far, it's US businesses", PIIE.

3) Dvorkin et al.(2025.10.16.), "How Tariffs Are Affecting Prices in 2025",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4) Eric Revell(2025.10.21.), "US businesses and consumers shoulder the bulk of tariff cost burden, Goldman Sachs finds", Fox Business.

- 美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성 판결에 따라 현행 조치에 일부 제약이 있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 등 다양한 법적 근거로 관세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국가·지역간 전략적 연대에 따른 다자통상질서의 재편

- 주요국은 미국과의 무역 투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제3국과의 다양한 협력 추진에 나서 다극적 통상 질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 최근 주요국별 지역·국가간 전략적 연대 추진 동향

| 국가 | 주요 내용 |
|----|---|
| 중국 | 러시아·브라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 연대를 통한 非달러 무역결제, 공동 펀드 조성 |
| EU | 메르코수르 FTA 체결(2024), 멕시코 FTA 강화 협정(2025), CPTPP 협력 확대 검토 |
| 인도 | 영국 FTA 체결(2025), EU·뉴질랜드·칠레 등 다수 국가와 FTA 체결 추진 |
| 일본 | CPTPP를 주도하고 있으며 GCC, 한·중·일, 튀르키예 등과 FTA 체결 논의 |

- 상소기구 복원 지연, 신규 다자협정 정체 등 WTO의 기능 회복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지역·복수국 간 협정 중심의 개별국 간의 보완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
- 2020년 발효된 USMCA는 2026년 발효 6년차를 맞아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미국 중심적 공급망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무역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경제안보·첨단기술·디지털·공급망 등 新통상 이슈의 중요성 부각

- 각국은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기술의 주도권 경쟁 속 특정 기술과 인프라를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고 산업 구조 재편에 나섬
 - 전략 자산에 대한 투자심사 강화·수출통제 확대·기술 공유 제한으로 경제안보 조치 심화
- 디지털 무역의 급성장으로 데이터 이동과 데이터 보호의 균형이 주요 통상 쟁점으로 부상하고 개방적 디지털 규범과 시장 보호 중심 규제 간 충돌이 더욱 심화될 전망
- 지정학적 갈등과 생산거점 집중으로 인해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장비, 의약품 원료 등이 공급망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
 - 특히 핵심광물을 독점하는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은 호주·일본·아세안 등과 협력을 강화 중이며 G7은 대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심광물 생산 동맹'을 출범할 예정

III

2026년 수출입 전망

■ 2026년 수출은 올해 대비 1.0% 증가한 7,110억 달러, 수입은 0.5% 증가한 6,330억 달러, 무역수지는 780억 달러 흑자 전망

- 반도체 등 IT 부문의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할 경우 2026년도 수출은 2년 연속 7,000억 달러 달성을 예상
 - 반도체 수출은 AI 투자 확대 및 범용 메모리 시장 호조로 약 6% 성장하고, 컴퓨터·무선통신 기기는 글로벌 IT 수요 회복으로 5~8% 증가 전망
- 자동차, 철강,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 비IT품목의 수출은 감소 전망
 - 자동차 수출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 실적 지속에 따른 기저 효과 및 해외 생산 확대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출 감소 전망
-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반도체 수입 확대로 인해 소폭 증가 전망
 - * 월별 반도체 수입 비중(%) : ('11) 6.2 → ('15) 8.8 → ('20) 10.8 → ('24) 11.4 → ('25.1~10.) 11.8
- 무역수지는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2026년에는 흑자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

참고 | 2026년 수출입 전망의 전제

- ① '26년 세계 경제 : 2% 후반 성장으로 성장세 소폭 둔화
 - 통상환경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회복력 둔화 예상
- ② '26년 세계교역 : 약보합세
 - 관세 영향 가시화 및 조기 선적 효과 소멸에 따라 교역 수요 위축 예상
- ③ 원/달러 환율 : 달러 당 1,400원 내외
 - 해외주식 투자 및 對美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화 수요 증가로 높은 수준을 유지
- ④ 국제유가(브렌트유) : 배럴 당 50달러 초중반
 - 제한적인 원유 수요와 OPEC+ 등 산유국 증산으로 공급과잉 예상. 중동 지정학적 위험은 상승 변수

▣ 2025년 및 2026년 수출입 전망

(단위 : 억 달러,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e | 2026년 ^p |
|--------------|------------------|-----------------|--------------------|--------------------|
| 수 출 (증가율) | 6,322 (-7.5) | 6,836 (8.1) | 7,040 (3.0) | 7,110 (1.0) |
| 수 입 (증가율) | 6,426 (-12.1) | 6,318 (-1.7) | 6,300 (-0.3) | 6,330 (0.5) |
| 수 지 | -104 | 518 | 740 | 780 |
| 무역규모 | 12,748 | 13,154 | 13,340 | 13,44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

| 품목 | 2024년 | 2025년 ^e | 2026년 ^p | 2026년 업황 전망 |
|---------|-----------------|--------------------|--------------------|---|
| 반도체 | 1,419 (43.9) | 1,700 (19.8) | 1,800 (5.9) | 빅테크의 AI 투자 확대 및 HBM4 양산으로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출이 증가하고, 범용 메모리도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세가 이어질 전망 |
| 자동차 | 708 (-0.1) | 719 (1.6) | 712 (-1.0) | 역대 최고 수준 실적 지속에 따른 기저 부담 및 해외생산 확대로 올해 대비 소폭 감소 전망 |
| 일반기계 | 512 (-4.1) | 468 (-8.6) | 481 (2.8) | 중동, ASEAN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원자재 가격·물류비 안정으로 소폭 반등 예상 |
| 석유화학 | 480 (5.0) | 426 (-11.3) | 400 (-6.1) | 중국 중심의 대규모 신증설 속에서 유가 하락 및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로 수출 지속 감소 |
| 석유제품 | 503 (-3.2) | 444 (-11.7) | 385 (-13.3) | 국제유가 하락 속 주요 석유제품 수요 부진, 글로벌 경쟁 가속 등으로 수출 물량 감소 |
| 철강 | 333 (-5.4) | 302 (-9.4) | 296 (-2.0) | 글로벌 수요 정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일본과 수출 경쟁 지속 등으로 감소 |
| 선박 | 256 (17.6) | 313 (22.4) | 296 (-5.4) | 2025년 선박 수출 급증에 따른 높은 기저로 소폭 감소가 예상되나, 조선 업황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 |
| 자동차부품 | 225 (-1.8) | 212 (-5.8) | 211 (-0.5) | 완성차의 미국 생산 확대, USMCA 개정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감소 |
| 무선통신 기기 | 172 (11.1) | 168 (-2.3) | 177 (5.4) | 폴더블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단가 상승으로 스마트폰 완제품 가격 인상 본격화 |
| 디스플레이 | 187 (0.9) | 172 (-8.0) | 177 (2.9) | IT 제품의 OLED 적용 확대, 스마트폰의 고부가가치화 등 우호적인 수출 여건으로 소폭 증가 |
| 컴퓨터 | 132 (76.7) | 127 (-3.8) | 137 (7.8) | AI 인프라 확대, 스토리지 수요 증가, 대용량 SSD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기업용 SSD 중심 수출 증가 |
| 섬유 | 105 (-4.1) | 98 (-6.7) | 100 (2.0) | 한한령 완화 기대, K-콘텐츠 파급력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고부가 의류 중심 성장 예상 |
| 가전 | 80 (0.4) | 72 (-10.0) | 73 (1.4) | AI 가전 보급 확대로 소폭 증가하나,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성장 둔화가 하방 요인 |

자료: 한국무역협회



참고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출입 전망 산출 방법

-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①일평균 수출입을 활용한 시계열 추세 분석(ARIMA) 및 ②자체 수출입 물량·단가 회귀모형을 바탕으로 ③13대 주력 품목 대상 업계 자문 결과, ④주요 원자재 수입 물량·단가, ⑤머신러닝 등을 종합해 수출입 금액을 전망

▣ 수출입 전망 산출 방법

| | 세부 내용 |
|-------------------------|---|
| 일평균 시계열분석 (ARIM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의 관측치를 과거 관측치와 백색잡음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하는 시계열 분석을 이용해 단기 수출입 전망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 예측에 많이 활용되는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odel) 모형을 이용하되, 월별 통관일 차이, 계절성(추석, 설 등) 제거를 위해 일별 수출입 금액을 기준으로 기간별 전망치 산출 모형 식별 결과 $(0,1,2)(0,1,1)s$ 로그 변환식으로 확인되어 이를 기초로 전망 |
| 업계 자문 (인터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자동차 등 13대 주력 품목 업종별 단체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자문을 통해 업종별 호조·부진 요소를 정성적으로 전망치에 반영·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별로 수출동향, 향후 수출환경 및 수출전망 예상치를 공유 총수출 대비 품목별 수출비중 및 업종별 단체가 제시한 하반기 수출의 리스크 요인을 별도로 고려해 이를 실제 전망시 가감 |
| 주요 원자재 수입 전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등 주요 원자재 수입 동향 분석을 기반으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국내 경기 및 원자재 가격(원유, 석탄, 가스), 전문기관 수급 전망치 등을 활용해 물량과 단가를 추정, 총수입액 대비 비중 등 고려 |
| 머신러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XGBoost, Random Forest, SVR 등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하여 최적 모형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국 경기 선행·동행 지수, 산업생산지수, 환율, 국제원자재 가격 및 품목별 생산·출하·재고지수 등 90개 이상의 거시·무역·금융 변수를 활용 |

IV

품목별 수출 동향 및 전망

01 반도체

■ (동향) 2025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한 1,700억 달러 예상

- '25년 AI 중심의 견조한 수요 속에서 공급 부족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대치 경신 전망
 - (품목별) HBM, 서버형 D램 등 AI 유발 고부가 메모리 수요뿐만 아니라, 저가라인 감산 및 생산종료 계획 등에 따른 재고 축적 수요, 기기당 탑재량 증가, HDD 대체 수요 등으로 범용 D램, NAND 수요 동반 상승 중
 - * D램 고정가(DDR4 8Gb, 달러) : ('24.12월)1.35 ('25.4월)1.65 (7월)3.90 (9월)6.30
 - (지역별) AI 가속기 및 PC, 노트북 제조사들의 재고 축적 수요로 對대만 수출 비중이 큰 폭 증가,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對中 수출 비중 소폭 감소
 - * 국가별 수출비중(%) : (대만) '24 15.2 → '25.1~9 20.7 / (중국) '24 32.8 → '25.1~9 27.7

■ (전망) 2026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1,800억 달러 전망

-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 및 메모리 가격 상승이 2026년까지 이어지면서 HBM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전망
 - 더불어 우리 반도체 기업의 HBM 공정 전환에 따른 범용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기존 제품의 가격 상승세도 상승세를 2026년까지 이어갈 전망
 - * D램 가격 전망(DDR4 8Gb, 달러) : ('25.2Q)2.12 (3Q)5.30 (4Q^e)7.50 ('26.1Q^p)9.00 (2Q^p)9.40
 - * NAND 가격 전망(DDR4 8Gb, 달러) : ('25.2Q)2.94 (3Q)3.53 (4Q^e)4.06 ('26.1Q^p)4.43 (2Q^p)4.75

▶ 2026년 반도체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비 %)

| 품 목 | 2024년 | | 2025년(예상) | | 2026년(전망)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반도체 | 1,419 | (43.9) | 1,700 | (19.8) | 1,800 | (5.9) |
| 메모리 반도체 | 883 | (71.8) | 1,140 | (29.1) | 1,250 | (9.6) |
| 시스템 반도체 | 479 | (11.4) | 495 | (3.3) | 482 | (-2.6) |
| 광개별 소자 | 57 | (34.3) | 65 | (14.3) | 68 | (4.4) |

주 : MTI 831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수출환경) 2026년에도 AI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로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관련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IT기기(AI PC, On-Device AI 등) 출시에 따른 수요 증가도 기대

- (수요) 자국 내 AI 인프라를 이용해 데이터를 직접 수집, 관리하여 디지털 주권을 세우려는 소버린 AI 구축 계획이 미국, 유럽, 중국, 중동 등으로 확산 및 본격화됨에 따라 수요 증가 전망

- 현재까지 반도체는 무관세 적용으로 美 상호관세에 따른 영향이 없으며, 실제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美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에 대한 의지가 강해 대미 수요도 견조할 전망

- (공급) HBM 중심 투자로 인한 capa 잠식으로 범용 메모리반도체 공급이 축소된 상황에서 과잉 생산 시 단가 하락 우려, 미국의 VEU 지위 철회* 등으로 주요 제조사들의 생산능력 확대는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공급부족 상태가 지속될 전망

* 미국 상무부가 9월 2일 삼성, SK하이닉스, 인텔,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중국 내 생산시설에 장비를 자유롭게 운송하는 허가(VEU, Validated End-User)를 철회 → 생산시설 증설 제약

▣ 2026년 반도체 수출 환경

| 품목 |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계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HBM4 양산 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BM4는 '26년 본격 양산에 따라 전체 HBM 매출의 약 55% 차지 예상 ■ 2나노급 공정 도입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0월 인텔이 세계 최초 18A 공정 적용한 애리조나 팹 완전 가동 발표 - 삼성·TSMC도 '25년 내 양산 예정 → '26년 2나노 고객사 확보 경쟁 심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 전망 ('24.10)</p> <p>(단위 : 억 달러, 전년비 %)</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전망 기관</th><th colspan="2">2025^e</th><th colspan="2">2026^p</th></tr> <tr> <th>금액</th><th>증가율</th><th>금액</th><th>증가율</th></tr> </thead> <tbody> <tr> <td>OMDIA</td><td>전체 메모리</td><td>7,755 2,018</td><td>(15.5) (20.3)</td><td>8,808 2,611</td><td>(13.6) (29.4)</td></tr> <tr> <td>Gartner</td><td>전체 메모리</td><td>7,726 1,922</td><td>(17.8) (20.2)</td><td>9,098 2,571</td><td>(17.8) (33.8)</td></tr> </tbody> </table> | | | | | 전망 기관 | 2025 ^e | | 2026 ^p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OMDIA | 전체 메모리 | 7,755 2,018 | (15.5) (20.3) | 8,808 2,611 | (13.6) (29.4) | Gartner | 전체 메모리 | 7,726 1,922 | (17.8) (20.2) | 9,098 2,571 |
| 전망 기관 | 2025 ^e | | 2026 ^p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OMDIA | 전체 메모리 | 7,755 2,018 | (15.5) (20.3) | 8,808 2,611 | (13.6) (29.4) | | | | | | | | | | | | | | | | | | | | |
| Gartner | 전체 메모리 | 7,726 1,922 | (17.8) (20.2) | 9,098 2,571 | (17.8) (33.8) | | | | | | | | | | | | | | | | | | | | |
| 경쟁국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트럼프 1기 이후 지속된 반도체 제재로 반도체 자립 전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수입에 의존해 온 AI 반도체 역시 중국 내부에서 모델 개발-데이터센터 구축-칩설계까지 완결된 생태계 구축 진행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국 관세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반도체는 무관세로, 美 관세 영향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美 빅테크 기업의 AI 관련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 - 다만 간접적으로 반도체 가격에 민감한 PC, 모바일 등 소비자용 제품 판매가 감소할 가능성은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02 자동차

■ (동향) 2025년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719억 달러 예상

- 최대 수출시장인 북미 지역의 수출 감소에도 유럽·중남미·중동 등 신흥지역의 친환경차 수출 증가로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품목별) 유럽 지역의 전동화 수요 증가로 EV·HEV 등 전동화 모델 신차출시 확대로 친환경차 수출이 확대

* '25.1~9월 친환경차 종류별 수출대수 증가율 : (BEV) 0.2%, (PHEV) 16.2%, (HEV) 28.2% (FCEV) -61.2%

- (지역별) 현지생산 확대 및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은 감소했고, 유럽의 경우 중견기업의 대리점 확대 등 시장 집중 공략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

* 대미 자동차 수출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 ('25.3월) -10.8, (6월) -16.0, (9월) 7.5, (10월) 29.0 ('25.1~10월) -15.9

* 대유럽 자동차 수출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 ('25.3월) 3.8, (6월) 16.3, (9월) 28.7, (10월) 2.5, ('25.1~10월) 25.7

■ (전망) 2026년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712억 달러 전망

- 미국의 신차·EU 충전설비 등 일부 IRA 인센티브 일몰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관세협상 타결로 동등한 경쟁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수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

- 유럽 지역은 각 국별 인센티브 확대* 및 보급형 BEV 출시 확대, 저금리 정책 유지 등으로 친환경차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차량 구매 보조금은 축소하되 충전인프라 확대, 기업·산업용 전기차 보급, 배터리 요건 강화 등에 집중

▣ 2026년 자동차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 대비 %)

| 품 목 | 2024년 | | 2025년(예상) | | 2026년(전망)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품목명 | 708 | (-0.1) | 719 | (1.6) | 712 | (-1.0) |

주 : MTI 741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수출환경) 2026년 자동차 시장은 미국 관세 리스크 현실화, EU 전과정평가 도입,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소폭 감소 전망

▶ 2026년 자동차 수출 환경

| 품 목 | 세부 내용 |
|--------------------|---|
| 업계 동향 (제품/기술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출시장의 환경정책 다원화로 다양한 파워트레인의 중요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서는 전기차 세제혜택 일몰로 HEV에 대한 수요 강세, 유럽에서는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전기차 인센티브 재개로 보급형 전기차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출시예정 HEV 라인업 : 제네시스 HEV라인업(G80, GV80), 8세대 아반떼 HEV, 5세대 투싼, 셀토스 HEV, KGM-SE10, 르노코리아 오로라2 등 ■ 전동화를 넘어 S/W 기술경쟁력이 새로운 소비자 선택의 기준으로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은 전통 완성차 기업들의 소프트웨어중심차량(Software-Defined Vehicle) 플랫폼 적용 모델 출시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그룹은 '26년 하반기 SDV 페이스카 출시예정, BMW는 노이에 클라세 기반 SDV, Sony-Honda의 AFEELA, M-Benz의 MB.OS탑재 CLA 출시 등 |
| 경쟁국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2026.6월부터 자동차온실가스 전과정(LCA)평가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되는 자동차의 원료 채취부터 소재·부품 및 완성차생산(제조), 수송/유통, 사용(운행), 그리고 폐기/재활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자발적으로 EU에 제출(향후 강제 의무화 예상) ■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New Energy, Vehicle, NEV)분야의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 현재 자국의 배터리안전기술 및 자율주행기술 표준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로를 통해 신홍국이 신에너지자동차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관련 법규와 표준을 전파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1~9월 중국 NEV 수출 현황 : 175.8만대 (89.4% ↑) |
| 유가·원자재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전지 시장이 완만히 회복되며 리튬의 공급가격도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기업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기업간의 가격경쟁 심화 우려 - 보급형 전기차 출시를 위해 저가형 소재기술, 원가절감을 위한 혁신 기술 채택 가속화 ■ 미·중 무역합의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25.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용 영구자석 등 핵심 전장부품에 필수적인 소재인 희토류의 수출통제 유예로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불확실성 해소 및 생산 안정화 도모 |
| 환율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환율 지속에 따른 수익성 양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약세는 완성차 수출 매출 증대에는 긍정적이나, 동시에 수입 원자재 및 부품 가격 상승이라는 양면적 리스크를 동반 - 더불어 현재 환율 효과로 활발한 중고차 수출 호조세는 환율 변동에 따라 둔화될 가능성도 상존 |
| 미국 관세 영향 및 업계 애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관세 리스크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미국 관세 영향 분석화)로 현대차는 2025년 3분기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29.2% 감소, 기아 전년대비 47.1% 감소하는 등 수익성 악화 - 협상 이후 15% 적용이 확정되며 경쟁국과 동등한 경쟁환경이 마련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악화와 가격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시장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 |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03 일반기계

■ (동향) 2025년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 대비 8.6% 감소한 468억 달러 예상

- 1~10월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산업기계(-11.0%)가 하락을 주도했으며, 기초산업기계(-4.8%),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3.8%)과 기타 기계류(-23.5%) 수출 모두 감소
 - 신흥국 인프라·설비투자에 따른 수요에도 불구하고, 최대 수출시장인 美 관세정책* 영향으로 하락세
 -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5%p 관세 부과('25.3.12) → 50%p로 인상(6.4) → 대상 품목 추가(8.18)
 - * 對美 품목별 수출증가율('25.1~10월, YoY%): (산업기계) -13.8 (기초산업기계) -6.6 (기계요소) -7.7 (기타) -48.4
- 인도, 중동 등 신흥국에서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로 금형, 공기조절기, 건설중장비 등이 호조세를 보였으나, 美 관세와 中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일반기계 총수출은 감소
 - * 국가별 일반기계 수출('25.1~9월, YoY%): (인도) 10.0 (사우디) 30.3 (UAE) 12.3 (중국) -6.4 (미국) -15.3
 - * 對인도 품목별 증가율('25.1~9월, YoY%): (플라스틱금형) 60.2 (프레스금형) 32.0 (금속공작기계부품) 36.4
 - * 對사우디 품목별 증가율('25.1~9월, YoY%): (공기조절기) 63.9 (기체펌프) 35.7 (기타운반하역기계) 19.4

■ (전망) 2026년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481억 달러 전망

- 美 관세 대상 품목 확대 우려, 중국發 수입수요 감소 등 하방압력이 지속되나, 해외 산업설비 관련 수주와 원자재가 및 물류비 안정으로 소폭 반등 예상
 - (美) 9월 2일 개시한 로봇 및 산업기계에 대한 232조 조사로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지속, 현지 주요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 심화 예상
 - * 존디어(美), 캐터필러(美), 고마츠(日), 오쿠마(日), 하스오토메이션(美) 등
 - (中) 2026년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일반기계 수입수요 감소 전망
 - * 中 경제성장률 전망(%), IMF): ('24) 5.0 → ('25^p) 4.8 → ('26^p) 4.2
 - * 中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25.1~9월 전년동기비, 중국국가통계국): -13.9%
 - (신흥국) 필리핀, 태국 등의 인프라 투자로 플랜트·에너지 기계 등 수출 증가 기대
 - * 필리핀 BBM 프로젝트(전력·배수 인프라, 펌프, 밸브, 제어시스템 등),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개발계획 (전력·제어시스템 관련 기계설비, 로봇 공정 자동화 시스템 등)

▣ 2026년 일반기계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 품 목 | 2024년 | | 2025년(예상) | | 2026년(전망)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일반기계 | 512 | (-4.2) | 468 | (-8.6) | 481 | (2.8) |

주 : MTI 71, 72, 75, 79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수출환경) 美 관세정책 확대 가능성*, 中 기계산업 고도화 정책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 확대

- * 美 국가 안보 영향 평가 조사 개시('25.9.2): 로봇, 산업용 스템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
- 중국은 '기계산업 안정적 성장 실행방안(2025~2026년)*'을 발표('25.9.29)하며 기술 자립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어 對中 수출 감소 우려
 - * '25~26년 기계산업 영업수익 연평균 3.5% 성장, 2026년까지 10조 위안(약 1.4조 달러) 돌파를 목표
- ASEAN(태국 LNG 터미널, 베트남 화력발전 공사 등) 및 EU(체코 원전 사업 등)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증가세인 점은 긍정적
 - * 해외 건설 수주 증가율('25.1~3Q, 전년동기비%): (유럽) 711.3 (아시아) 59.4
 - (EU) 독일을 중심으로 국방비 및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며 제조업·건설 경기 회복 예상, 이에 따른 에너지 효율형·친환경 설비 중심의 기계류 수출 증가 기대
- 품목별로는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고효율·친환경 냉동공조기계 등 기초산업기계뿐 아니라, 美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 신흥국 해외 플랜트 수주 등에 따른 산업기계도 수요 지속 예상

◆ 2026년 일반기계 수출환경

| 품목 | 세부 내용 |
|-----------|--|
| 업계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산업은 디지털·지능화·친환경 전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작기계) 고정밀·고다축 가공기, 적응제어 (건설기계) 전기·하이브리드 친환경, 자율작업 등 ■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중동, ASEAN 등 신흥국 중심의 고효율·스마트 산업 기계의 수출 증가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AN) 베트남, 인니 등 인프라 개발 정책자금 투입으로 스마트 자동화기계 수요 증가 기대 |
| 경쟁국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자금 투입이 자국 기업 육성 및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제품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기계산업 클러스터 육성, 세제 우대 정책 등 성장계획 발표('25.9.29, 中 공업정보화부) |
| 유가·원자재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제조업 수요 둔화 등 원자재, 국제유가 하락 압력 지속 ■ 원자재 가격은 비교적 안정 추세나, 희토류 규제* 등 공급망 이슈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영구자석 생산 기술 등 수출통제 강화 정책 발표('25.10.9.) |
| 환율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 기계산업은 전반적으로 수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일반기계 내 품목별로 환율 영향이 상이하며, 고환율 장기화가 수입국의 설비투자 여력을 저하시킬 경우 수요 둔화 우려 |
| 업계 애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관세정책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대상 품목 확대 시 수출 타격 우려 - 관세 부과 유예기간 확보, 관세 관련 기업 지원제도 확대 등 필요 |

자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04 석유제품

■ (동향) 2025년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11.7% 감소한 444억 달러 예상

- 1~9월 수출단가는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달러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출물량도 경쟁국 수출 확대 영향으로 소폭 감소

* 연도별 석유제품 수출물량(억 배럴): ('22) 2.65 → ('23) 2.54 → ('24) 2.62 → ('25e) 2.52

* 연도별 석유제품 수출단가(달러/배럴): ('22) 122 → ('23) 108 → ('24) 91 → ('25e) 76

* 연도별 브렌트유 현물가('25.11월 EIA, 달러/배럴): ('22) 101 → ('23) 82 → ('24) 81 → ('25p) 66

- (품목별) 휘발유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설비 차질로 전년 대비 보합이 예상되며, 경유 수출은 러시아의 공급금지 조치**와 동절기 수요로 연말까지 증가 가능성

* '25.1~9월 제품별 수출비중(%): (경유) 38.1 (휘발유) 22.1 (윤활유) 11.6 (나프타) 5.3 (중유) 1.2

** 우크라이나 드론 공습 및 가을 정기보수 영향으로 러시아 정부는 휘발유/경유 수출을 연말까지 금지(9.25)

- (지역별) 미국 내 석유 정제설비 폐쇄**로 관세 미적용 품목인 석유제품의 대미 수출 비중 증가

* '25.1~9월 지역별 수출비중 변동폭(전년동기비, %p): (미국) 2.1 (유럽/아프리카) 0.7 (대양주) -1.7

** '25~'26년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현황 : LyondellBasell Industries, TX(27만b/d, '25.1), Phillips 66, CA(14만b/d, '25.10), Valero benicia refinery, CA(14만b/d, ~'26.4)

■ (전망) 2026년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13.3% 감소한 385억 달러 전망

- 2026년 수출물량은 경기둔화에 따른 주요 석유제품 수요 부진, 경쟁국의 신증설 영향 등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며, 유가 하락으로 석유제품 수출단가도 하락하며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2026년 석유제품 수출물량은 전년 대비 4.0% 하락한 4.94억 배럴, 수출단가는 9.7% 하락한 78\$/b로 전망

- 대러 제재에 따른 인도 등 경쟁국의 수출처 대체로 아세안向 공급과잉은 위기요인이나, 연료유 중 항공유의 북미 자급률 하락 및 재고 감소로 연료유 수출은 보합 기대

* '24년 인도의 석유제품 수출액 가운데 EU/영국/미국 비중이 약 32%로, 러시아산 제조 석유제품 수입 금지 등 제재시 인접한 아세안/아프리카 등으로 대체 불가피

* '26년 美 항공유 소비 및 연말 재고 전망치(EIA, b/d): 1.74백만(사상 최고치), 3,850만('10년 이후 최저치)

▣ 2026년 석유제품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 대비 %)

| 품 목 | 2024년 | | 2025년(예상) | | 2026년(전망)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석유제품 | 503 | (-3.3) | 444 | (-11.7) | 385 | (-13.3) |

주 : MTI 133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수출환경) 2026년 석유제품의 초과 공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쟁국 신증설, 미 관세조치 영향 및 대러 제재 강화 등으로 교역 흐름의 변동성이 클 전망

◆ 2026년 석유제품 관련 대내외 수출 환경

| 품 목 | 세부 내용 |
|--------------|---|
| 수출여건 및 업계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C+ 등 산유국 증산의 영향으로 '26년에도 글로벌 공급 과잉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A, OPEC, EIA 등 주요 에너지 기관은 공통적으로 경제성장 둔화와 산유국 증산 등에 따른 공급 과잉이 '26년에도 지속·심화될 것으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A 연간(반기) 초과공급 전망치(만b/d) : ('25) 232 → ('26) 400(1H : 473) - OPEC+ 주요 8개국은 2차 자발적 감산(216만b/d)을 예정보다 1년 일찍 종료했으며, 1차 자발적 감산(166만b/d)에 대한 증산도 이미 일부 시행(25.10~12. 40만b/d) ■ 경쟁국 및 인접국 정제설비 신증설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30년까지 진행중인 글로벌 정제설비 신증설(238만b/d) 가운데 약 50%(115만b/d, 인도/중국/인니 등)가 '26년 내 가동 예상 - 인도는 '30년까지 약 100만b/d 규모의 신증설 진행 중, 58만b/d가 '26년 내 가동 예상 |
| 경쟁국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러 제재 강화에 따른 수출여건 변동성 확대(EU 제 18차 제재 패키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인도 Nayara Energy(Vadinar refinery) 제재 대상 포함('25.7.18), 제3국에서 러시아산 원유로 제조된 석유제품의 수입 금지('26.1.21~) - 英, 러시아(Lukoil), 중국(Yulong refinery), 인도(Nayara Energy)에 대한 제재 실행 - 美, 러시아 석유류 구매 관련 對인도 추가관세(25%) 부과('25.8.6) 및 러시아 정유사 (Lukoil, Rosneft) 제재 발표('25.10.22) |
| 유가 전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 초과공급과 글로벌 재고 증가 등에 따라 50불대 하락 전망이 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우 사태 지속, 관세 조치 영향 본격화, 중국 비축 수요, OPEC+의 증산 속도 조절 등에 따른 유가 변동성 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공급이 2분기까지 150만b/d 감소할 경우, 브렌트유는 최대 85\$까지 상승 전망 (GOLDMAN) |
| 관세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제품은 美 관세 제외 품목으로, 관세의 직접영향 받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관세 부과로 전세계 경기가 둔화될 경우 석유제품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 업계 애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제품 수출 관련 원가 경쟁력 제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UAE CEPA '25년 내 발효, 산유국 대상 양자/다자 FTA 추진 필요 - 석유정제공정 원료용 중유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체 및 지원 ■ 항공유 시장 재편 관련 전략산업 세액공제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로드맵(27년 1%) 이행 등 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생산 세액공제 등 지원책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1.75\$/gal), 일본(30엔/l) 등은 적극적 지원으로 시장 재편에 대응 중 * 여/야를 막론하고 10건 이상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중 |

주 : 유가전망은 EIA(10.7), GOLDMAN(9.7), S&P(9.30), WOODMAC(10.2)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대한석유협회, IEA

05 석유화학

■ (동향) 2025년 석유화학 수출은 전년 대비 11.3% 감소한 426억 달러 예상

- 석유화학 수출은 대부분의 품목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주요국 수출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실적이 부진한 양상
 - (품목별) 기초유분·중간원료·합성원료·합성수지 등 대부분 품목이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하며 전반적 부진이 심화
 - * '25.1~10월 석유화학 품목별 수출증가율(yoy%): (기초유분) -16.5, (중간원료)-17.6, (합성원료) -15.3, (합성수지) -7.9, (합성고무) -1.6, (기타제품) -18.0
 - (지역별) 약보합세(-0.2%)를 기록한 EU향 수출을 제외하면 주요지역 수출은 대부분 감소
 - * '25.1~10월 지역별 석유화학 수출증가율(yoy%): (中) -4.9, (印) -9.3, (美) -37.8, (ASEAN) -10.6, (EU) -0.2
- 저유가 및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가격 약세 장기화,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 등으로 전반적인 수출 환경은 크게 악화
 - 글로벌 수요증가 둔화 및 非OPEC 증산에 따른 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 동반 하락세
 - * 국제유가(Dubai, \$/bbl): ('23) 82.1 → ('24) 79.6 → ('25.1~11월)70.2
 - *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ton): ('23) 1,243 → ('24) 1,217 → ('25.1~10월) 1,117
 - 中 공급과잉으로 수출 경쟁 심화, 美 관세조치 등 통상리스크 확산
 - * 중국의 합성수지 수출액(백만톤): ('20) 9.9 → ('24) 25.7 → ('25.1~9월) 22.8(전년동기비 +20.5%)
 - * 우리나라의 對美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억달러): ('24) 42.8 → ('25.1~10월) 23.9(전년동기비 -37.8%)

■ (전망) 2026년 석유화학 수출은 금년 동기 대비 6.1% 감소한 400억 달러 전망

- 하반기 대규모 신설비 가동으로 국내 공급 능력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에 따라 실제 가동률은 하락하여 수출 증가는 어려울 전망
 - * 국내 주요 설비 가동률('25→'26, %): 에틸렌 77→75, 프로필렌 70→69 (S&P)
 - * 국내 PE 순수출(만톤): ('24) 413 → ('25p) 394 → ('26p) 409 (S&P)

▣ 2026년 무선통신기기 수출 동향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 품 목 | 2024년 | | 2025년(예상) | | 2026년(전망)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석유화학제품 | 480 | (5.0) | 426 | (-11.3) | 400 | (-6.1) |

주 : MTI 21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 (수출환경) 2026년 석유화학산업은 중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신증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유가 및 공급과잉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 감소가 지속될 전망

◆ 2026년 석유화학 수출환경

| 품목 | 세부 내용 |
|-----------|---|
| 업계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은 수요를 상회하는 대규모 신설비 가동이 지속되면서 가동률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이후 글로벌 석유화학(에틸렌 기준) 산업은 80%선의 저가동률이 고착화됨에 따라, 업황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에틸렌 생산능력 순증(백만톤/년): ('24)2.5→('25p)8.5→('26p)8.0 * 국내 주요 석유화학 9개사 영업이익률: ('23)-0.2→('24)-1.5→('25.1H)-3.8 ▪ 국내 석유화학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품 유입으로 수입은 증가하면서 업계 어려움은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석유화학 3대부문⁵⁾ 수요증가율(%): ('23)-7.5→('24)-8.2→('25.1~9월)-7.3 * 우리나라 석유화학 수입(만톤): ('23) 908 → ('24) 942 → ('25.1~10월) 837 * 우리나라 석유화학 대중국 수입 비중(%): ('23) 22 → ('24) 26 → ('25.1~10월) 27 |
| 경쟁국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대규모 신증설 가동이 이어지며 공급은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수요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공급과잉이 더욱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석유화학 대표 품목인 합성수지 부문에서 수출국 포지션으로 전환되면서 수출 시장 경쟁은 더욱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에틸렌 설비 글로벌 비중(%): ('22)21.0→('24)22.8→('25p)24.9 * 中 합성수지 자급률(%): ('22)90.3→('23)93.1→('24)97.5→('25p)102.5 * 中 합성수지 교역('24→'25P, 백만톤): 수출 25.7→30.4 수입 29.0→26.8 |
| 유가·원자재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 하락에 따른 납사 등 석유화학 원재료 가격의 동반 하락 및 업황 개선 지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수출가격은 약세가 지속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상반기 유가는 세계 석유 수요가 계절적 요인으로 감소하는 반면, 생산량은 2025년 4분기 수준을 유지되어 공급과잉이 심화됨에 따라 2025년 하반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사가격(NEA, \$/ton): ('24)674→('25)548→('26)495 (S&P) * 에틸렌(Asia, \$/ton): ('24)880→('25)756→('26)661 (S&P) |
| 미국 관세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관세조치 인상 여파로 올해 대미 수출이 37.8% 감소하는 등 수출환경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한미FTA로 무관세를 적용받던 다수의 품목에 15% 내외의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벤젠(-92.6%)[*] 등 석유화학 품목 대미수출 38.6%로^{**} 대폭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젠 대미수출액(천달러): ('24) 624.7→('25.1~10월) 45.9 (전년동기비 -92.6%) ** 석유화학제품 대미수출액(억달러): ('24) 42.8 → ('25.1~10월) 23.9(전년동기비 -37.8%) |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S&P Global, 에너지경제연구원, 중국국가통계국

5)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부문 합산

06 철강

■ (동향) 2025년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한 302억 달러 예상

- 전세계적 수요 둔화와 철강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로 주력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감소하며 수출 단가, 물량, 금액 모두 감소
 - * 철강(MTI61) 수출액(억불): ('23)352 → ('24)333 → ('25.f)302(-9.4%)
- 미국 철강관세(50%)를 비롯해 인도 판재류 세이프가드, EU 수입규제 강화, 캐나다 관세할당제(TRQ) 시행 등 주요국 무역구제 조치 강화로 수출 환경 악화
 - 중국 과잉공급* 영향으로 글로벌 철강시황 악화, 주요국의 중국산 철강 규제 강화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 확산
 - * '24년 글로벌 공급과잉(생산능력·생산량) 6.3억톤, '27년 7억톤 상회 전망(OECD, '25.3)
 - ** '24년 중국 철강수출 1.2억톤으로 사상 최대 수준
 - 주요국 수입규제 강화로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수주악화, 관세부담 심화되면서 아세안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 심화

■ (전망) 2026년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296억 달러 전망

- (품목) 주요 품목의 수출 약세는 지속되겠으나, '26년초부터 중국의 공급 조절 가능성과 개발도상국 중심의 수요 회복으로 단가 상승이 전망되어, 수출액 감소폭 일부 상쇄 기대
 - * 철강 수출가격 전망(WSD,\$/톤): ('25.3Q)417 → (4Q)460 → ('26.1Q)490 → (2Q)515
 - 글로벌 철강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주요국 무역구제 강화로 수출환경은 악화되면서 전반적인 수주 활동 위축
- (지역) 미국, EU 시장 수출은 대폭 감소, 신흥국 등 수요증가 지역 위주로 수출 역량 집중
 - (미국) 철강관세 부과로 물량 기준 20% 이상 수출 감소 예상, 미국 내 공급부족 품목과 자동차용 강판 등 필수재 위주로 수출
 - (EU) CBAM 시행, 세이프가드(SG) 이후 관세할당제(TRQ) 도입 등으로 수출 환경 악화되며 수출 축소 예상, 국가쿼터 협상 결과 등에 따라 수출 계획 조정
 - (아세안)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며 성장하는 시장으로, 최근 중국산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으나, 과도한 수출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 전망 및 무역구제 리스크 등 공존
 - (인도) 성장 시장으로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수출 지속,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치로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겠으나 최저가격제 도입으로 수출 영향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2026년 철강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 대비 %)

| 품 목 | 2024년 | | 2025년(예상) | | 2026년(전망)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철강 | 333 | (-5.4) | 302 | (-9.4) | 296 | (-2.0) |
| 철강 | 285 | (-4.6) | 263 | (-7.7) | 257 | (-2.3) |
| 철강재 | 48 | (-10.1) | 39 | (-18.8) | 39 | (-0.5) |

주 : MTI 61 기준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수출환경) 수요 정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과 CBAM 본격 시행과 같은 탈탄소 움직임에 동시 대응

▣ 2026년 철강 수출환경

| 품목 | 세부 내용 |
|-----------|---|
| 업계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글로벌 철강수요 전년대비 1.3% 증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철강수요 전망 (백만 톤, worldsteel) : ('25) 1,749 → ('26) 1,773 - 코로나 이후 수요 반등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글로벌 철강수요 정체, '26년 수요도 낙관적이지 않음, 특히 수요 정점을 지난 중국 수요가 지속 감소 추세로 중국발 과잉공급이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 - EU, 미국 등의 일부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무역장벽으로 수출 환경은 악화, 신흥국(인도, 아세안, 남미 등)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경쟁국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 무역구제 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MCA) 미국은 철강제품에 50% 관세부과('25.6~), 캐나다 철강 TRQ('25.8~), 멕시코 철강관세 인상 및 수입규제 강화 검토 중 - (EU) SG 종료 이후 TRQ 도입 추진, 조강국 신고 의무 등 - (인도) 판재 세이프가드 시행('25.4~) ▪ 중국·일본과의 수출 경쟁 지속, 신흥 경쟁국(베트남, 대만, 인도)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수요둔화에도 생산수준이 유지되는 과잉공급상황 지속, 적극적 감산이나 정부 부양책 관련 기대감은 있으나 현재는 불명확한 상황 - (일본) 해외 상공정 투자(인도, 아세안, 미국) 확대, 수입규제 강화 - (베트남, 대만, 인도) 주요국의 중국산 규제 틈새를 활용해 수출 확대 |
| 유가·원자재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원자재 가격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수요 정체와 더불어 원자재(원료탄, 철광석)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원료에 대한 마진악화 우려 축소 - 정치·경제적 이유로 일부 부원료, 스크랩 등을 수출통제하면서 자원무기화 하려는 경향이 있어 해당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 환율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철강은 원료는 수입, 제품은 수출하는 구조로 환율에 따른 수익성 변동은 크지 않으나, 수출 물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관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환율에 대한 업계 부담도 확대 |
| 업계 애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정체 - 정책 불확실성 확대 - 수익성 악화의 3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시장의 무역구제 조치 강화 및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수주 위축 - 과잉생산능력에 따른 글로벌 철강시장 경쟁심화로 수익성 악화 - 저가 수입재 유입 증가로 국내 시장 기반 위협 ▪ 탈탄소 등 산업 전환 요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AM 시행 등 탈탄소 등 친환경 전환 요구 본격화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수요 창출, 제품 차별화 필요 |

자료 : 철강협회

07 자동차부품

■ (동향) 2025년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212억 달러 예상

- 전기차 캐즘 장기화,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변경, 부품 공급망 현지화 확대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감소 전망
 - (품목별) SUV, HEV 판매 호조에 따른 내연기관 부품 수출 비중은 높게 유지되나, 부품 공급망 현지화 확대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 '25.1~9월 품목별 수출증가율(yoy, %) : (가솔린엔진부품) -15.1, (기어박스) -5.1, (소음기) -1.5
 - (지역별) 미국의 관세부과, 주요국 자동차부품 현지 조달 확대 등으로 멕시코, 중국, 인도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
 - * 25.1~9월 지역별 자동차부품 수출(yoy, %) : 미국(-4.7), 중국(-9.8), EU(-9.2), 멕시코(-7.2), 인도(-7.6)

■ (전망) 2026년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한 211억 달러 전망

- 완성차의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철강-알루미늄 부품 현지조달 증가 및 전기차 전환 가속화로 내연기관 부품 수요 감소 등 예상
 - 美 메타플랜트(HMGMA) 납품을 위해 범퍼, 차체, 시트, 배터리 모듈 등 부품기업이 현지 진출
 - * 자동차부품기업 해외진출 현황('24→'25) : 미국(80개 업체, 114개 공장 → 80개 업체, 132개 공장)
멕시코(68개 업체, 77개 공장 → 70개 업체, 79개 공장)
- 한-미 232조 품목관세 15% 타결로 부담이 일부 경감되었으나, 완성차 미국 내 생산 확대, USMCA 개정('26년) 불확실성,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 지속으로 수출 감소 전망

◆ 2026년 자동차부품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 대비 %)

| 품 목 | 2024년 | | 2025년(예상) | | 2026년(전망)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자동차부품 | 226 | (1.8) | 212 | (-5.8) | 211 | (-0.5) |

주 : MTI 742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 (수출환경) 국내 완성차의 현지 생산 확대, 미국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등으로 전반적 감소

◆ 2026년 자동차부품 수출 환경

| 품 목 |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
| 업계 동향 (제품/기술 등) | <p>■ 공급망 현지화를 위한 현대차그룹 대규모 미국 투자 단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 사업에 총 210억 달러(약 28조 원, 이후 260억 달러로 증액) 투자 계획 발표 - 자동차 현지생산 120만 대 체제 구축 : 앨라바마(36만대), 조지아(34만대), HMGMA(30만대→50만대) - 부품 소싱 다변화 위한 태스크포스팀(TFT) 구성하여 200여 개 이상의 부품에 대한 현지 조달처 발굴 및 최적 조달 방안 검토 | | | | | | | | | | | | | | | |
| 경쟁국 동향 | <p>■ 美·日, 美·EU의 232조 품목 관세 합의(25%→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최대 15% 관세 한도(MFN 기본관세, Section232 등 포함) 설정, 6,000억 달러 이상 대미 투자(민간 기업 중심) - (일본) 15% 기본 관세율 적용,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원전, 천연가스, AI 등) * (한국) 15% 합의(10/29 APEC 기간 중 현상타결 발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 | | | | | | | | | | | | | | |
| 업계 애로 | <p>■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과도한 무공해차 보급 목표로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을 위해 2018년 대비 48~65% 감축하는 4가지 시나리오안 마련 - 이 중 수송부문 감축수단으로 무공해차(전기차·수소전기차) 2035년까지 840만~980만대(전체 차량의 30~35%) 보급 목표 설정 -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 수준의 급격한 전동화 전환으로 부품업계 대규모 구조조정 및 고용감소 불가피, 중국 전기차 의존도 심화로 내수시장 잠식 우려 * 산업생태계 충격 최소화를 위해 2035년 무공해차 보급량을 550-650만대(전체 차량의 19.7-23.2%) 수준으로 조정 필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국가 전체</td> <td>-48.0%</td> <td>-53.0%</td> <td>-61.0%</td> <td>-65.0%</td> </tr> <tr> <td>수송 부문</td> <td>-55.2%</td> <td>-56.9%</td> <td>-58.9%</td> <td>-67.0%</td> </tr> <tr> <td>등록비중 (차량대수)</td> <td>30% (840만대)</td> <td>34% (952만대)</td> <td>35% 이상</td> <td>(980만대 이상)</td> </tr> </table> <p>주 : 2035년 등록대수 2,800만대 기준</p> <p>자료 : '25.9.24. 2023 NDC 수송부문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자료</p> | 국가 전체 | -48.0% | -53.0% | -61.0% | -65.0% | 수송 부문 | -55.2% | -56.9% | -58.9% | -67.0% | 등록비중 (차량대수) | 30% (840만대) | 34% (952만대) | 35% 이상 | (980만대 이상) |
| 국가 전체 | -48.0% | -53.0% | -61.0% | -65.0% | | | | | | | | | | | | |
| 수송 부문 | -55.2% | -56.9% | -58.9% | -67.0% | | | | | | | | | | | | |
| 등록비중 (차량대수) | 30% (840만대) | 34% (952만대) | 35% 이상 | (980만대 이상) | | | | | | | | | | | | |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국제무역통상연구원

08 선박류

■ (동향) 2025년 선박류 수출은 전년 대비 22.4% 증가한 313억 달러 내외 예상

- 선가 상승기에 높은 선가로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생산 공정 안정화가 병행되어 전반적인 수출 흐름이 개선되는 추세
 - 2022~2023년 다량 수주한 LNG운반선 및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선가 선박이 인도됨에 따라 전체 수출액 중 해당 선종의 비중이 각각 38.1%, 33.3%에 달할 전망
 - * 韓 수주 현황(백만CGT) : ('22) 16.6 → ('23) 9.9 → ('24) 10.9 → ('25.9) 7.3
 - * 신조선가 지수(pt, '88년 1월 100 기준) : ('22) 161.8 → ('23) 178.4 → ('24) 189.2 → ('25.9) 185.6

■ (전망) 2026년 선박류 수출은 전년 대비 5.4% 감소한 296억 달러 전망

- 일시적으로 컨테이너선 비중이 감소하는 한편, LNG운반선이 공백을 메우며 전체 수출액의 47.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컨테이너선 수주 증가로 2027년에는 컨테이너선 비중이 다시 회복될 전망
- 금액 기준 발주 지역(Owner)*은 유럽이 50.0%로 최대이며, 아시아(30.5%), 중동(14.2%), 북미(4.2%), 대양주(0.9%), 아프리카(0.3%) 순으로 나타남
 - * 발주 지역 비중 변화(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5→'26, %) : (유럽)55.9→50.0, (아시아)26.8→30.5

▣ 2026년 선종별 수출 전망

(단위 : 척, 억 달러, 비중 %)

| | 탱커 | 제품운반선 | 컨테이너선 | LNG선 | LPG선 | 해양플랜트 | 기타 |
|----------|--------|--------|--------|--------|--------|-------|-------|
| 물량(척) | 33 | 33 | 26 | 58 | 33 | 1 | 19 |
| 비중(%) | (16.3) | (16.3) | (12.8) | (28.6) | (16.3) | (0.5) | (9.4) |
| 금액(억\$) | 31 | 18 | 42 | 135 | 31 | 3 | 24 |
| 비중(%) | (10.9) | (6.3) | (14.7) | (47.7) | (10.8) | (1.2) | (8.5) |
| 착당 평균기여% | 0.9 | 0.5 | 1.6 | 2.3 | 0.9 | 3.4 | 1.3 |

자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2026년 선박류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비%)

| 품 목 | 2024년 | | 2025년(예상) | | 2026년(전망)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 256 | (17.6) | 313 | (22.4) | 296 | (-5.4) |
| 선박 | 234 | (17.0) | 272 | (16.4) | 280 | (2.8) |
| 해양구조물 | 6 | (106.4) | 10 | (53.1) | 3 | (-65.3) |

주 : MTI 746(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기준

자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수출 환경) 항로 우회로 인한 선박 수요 증가와 고환율은 수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인력 부족·경쟁국의 조선 경쟁력 강화·원자재가 상승 등은 부정적 요인

- (대내 환경) 생산 안정화로 공정 지연 우려는 일부 완화되었으나, 후판 등 원자재가 인상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기자재 공급 불안정 우려 등 하방 위험 상존
- (대외 환경) 중국의 건조 능력 확대에 따른 공격적 수주와 미·중 갈등에 따른 제재 리스크는 부담이나, 미국의 LNG 생산 확대는 LNG운반선 및 해양플랜트 발주 증가 요인으로 긍정적임

◆ 2026년 선박류 관련 대내외 수출 환경

| 품 목 | 세부 내용 |
|--------------------|---|
| 업계 동향 (제품/기술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O 특별회의에서 넷제로 프레임워크(NZF) 채택을 논의했으며, 국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IMO 회원국 과반*의 찬성으로 NZF 채택 투표 1년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O 회원국 중 찬성 57개국, 반대 47개국, 기권 21개국 - 시장이 기대하던 GHG 감축 조치(탄소세)에 따른 친환경 교체 발주 수요 확대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평가됨 - 탄소중립을 위한 연료 전환 과정에서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LNG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 경쟁국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신규 건설 및 도크 재가동 등 건조 능력 확대를 추진하며, 글로벌 건조 능력 확장의 중심축으로서 글로벌 건조 능력의 약 50%를 차지 ■ (일본) 조선소 생산 능력 증대 및 현대화와 국영 조선소 설립 등을 포함한 국가적 전략을 발표하며 글로벌 조선 경쟁력 강화를 모색 중 ■ (미국) 중국 조선업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조선업 활성화 목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 상업적 경쟁력은 낮으나, 정책 및 투자 지원으로 일부 회복이 기대되며, 해군력 강화와 국가적 프로젝트 중심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 유가·원자재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 지정학적 긴장이 상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OPEC+ 증산과 미국의 공급 확대에 힘입어 유가는 안정세를 보이며, 해양플랜트(FPSO·FLNG) 투자 수요도 견조함 ■ (후판) 국내 철강업계, 중국산 열연강판/후판을 반덤핑 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 무역위 최종 판정* 결과 중국산 제품 수입 시 34.10% 덤프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 결정 * 중국 9개 수출자는 5년간 수출가격 인상 약속을 제안함에 따라 미부과 |
| 환율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산업은 수출 중심 구조 및 장기간의 건조 기간으로 인한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수주액(계약 선가)의 70~100%를 선불환 매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의 영향은 제한적(환 헤지 비율은 각사별로 상이) - 다만, 고환율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일부 기자재 수입에 대한 비용 부담 가중은 우려됨 |
| 업계 애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조선소 대상 수주/수출 원활화를 위해 RG 한도 등 금융지원 확대 및 적기 이행 필요 ■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시장 변화(주력 선종 변경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공급망 유연성 하락 |

자료 : Clarksons Research, 산업부 무역위원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09 디스플레이

■ (동향) 2025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한 172억 달러 예상

- 애플 스마트폰 전 모델의 LTPO 채택 및 경쟁국 대비 공급물량 우위(약 97%), IT제품의 OLED 확대에도, 美 관세조치에 대한 고객사의 우려로 생산물량 축소 및 패널 공급단가 인하 압박 등으로 실적 하회
 - (품목) 스마트폰用은 미국 관세 우려에 따른 단가 인하 압박과 시장 위축으로 전년대비 10.2% 감소, IT제품用은 OLED 확대에도 LCD 업황 부진에 따른 생산 감소로 전년대비 0.4% 감소, TV用는 OLED 패널 단가 하락 및 구매 촉매 부재 등으로 전년대비 36% 감소
 - * '25년 9월 누계 품목별 수출현황(억불) : (스마트폰用) 68 (IT用) 19 (TV用) 9
 - (지역) LCD에서 OLED로의 사업 전환으로 OLED 모듈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인도向 수출 증가세
 - * 국내에서 생산된 패널(셀)은 후속공정을 위해 모듈공장이 위치한 베트남(OLED), 중국(LCD) 등으로 수출

■ (전망) 2026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약 177억 달러 전망

- (품목) OLED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140억 달러, LCD는 2.6% 감소한 37억 달러 예상
 - OLED는 스마트폰 고부가가치 분야(LTPO, CoE, 폴더블 등) 수요 확대, IT제품 채택 가속화 및 이벤트 특수에 따른 수요 개선 기대, LCD는 공급과잉에 따른 패널단가 하락 및 프리미엄 라인업의 OLED 채택 대세화로 시장 축소
 - * 글로벌 시장 전망 (억 달러, 전년대비%) : [디스플레이] ('25) 1,347 → ('26) 1,399 (+3.9%)
 [OLED] ('25) 535 → ('26) 562 (+5.0%) [LCD] ('25) 798 → ('26) 812 (+1.8%)
 ↘[LCD 内 IT · 자동차] ('25) 426 → ('26) 418 (-1.8%)
- (지역) 베트남向 수출은 글로벌 고객사(애플 · 삼성전자 등) 대응 및 OLED 모듈공장이 집중돼 있어 증가 전망, LCD 모듈공장 비중이 높은 중국은 점차 수출 감소 예상

▣ 2026년 디스플레이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 대비 %)

| 품 목 | 2024년 | | 2025년(예상) | | 2026년(전망)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디스플레이 | 187 | (0.9) | 172 | (-8.0) | 177 | (2.9) |
| OLED | 139 | (-1.4) | 134 | (-3.6) | 140 | (4.5) |
| LCD | 48 | (7.7) | 38 | (-20.8) | 37 | (-2.6) |

주 : MTI 8361(디스플레이), MTI836110(LCD), MTI836120(OLED) 기준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수출환경) 2026년 디스플레이 산업은 IT제품의 OLED 확산 가속화, 스마트폰 시장의 고부가가치 분야(폴더블 등) 확대로 글로벌 시장은 전년대비 3.9% 증가하는 등 국내기업에 우호적인 여건 형성 예상

*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억불, OMDIA 25Q3) : [전체] ('25e)1,347 → ('26e)1,399 (+3.9%)

◆ 2026년 디스플레이 수출환경

| 품목 | 세부 내용 |
|-----------|--|
| 업계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업의 OLED 시장 리드 지속, IT제품의 OLED 적용 확대로 실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글로벌 기업 폴더블 신규 라인업 출시에 따른 국내기업의 아이폰 폴더블 독점공급 계약 체결(~'28년), 고부가가치 기술(CoE) 적용 확대로 국내기업의 실적 증가 및 공급물량 우위 지속 - (IT) 아이패드 미니, 맥북 프로 시리즈 등 글로벌 기업의 OLED 적용 확대로 OLED 기술적 강점이 있는 국내기업의 IT분야 수출은 호조세 예상 - (TV) 이벤트 특수(올림픽, 월드컵 등)에 따라 프리미엄 제품인 OLED TV수요 개선으로 수출 개선세 전망 |
| 경쟁국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BOE, IT OLED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8.6세대 OLED Fab 가동('2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25~'30) 연평균(CAGR) 25% 고성장이 예상되는 IT용 OLED 시장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삼성디스플레이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8.6 OLED Fab 가동 |
| 유가·원자재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中 무역분쟁에 따른 中 원자재 수출 통제 위협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부품목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 수급 다변화 검토 및 수급 동향 모니터링으로 지속 대응 |
| 환율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패널기업은 파생상품(통화선도, 스왑 등) 활용으로 변동성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은 국내 패널생산의 대부분(95% 이상)을 수출 중이며,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수입단가 증가 등)을 축소하기 위해 환율 헛지 상품을 이용하고 있어 환율 영향은 제한적 |
| 업계 애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투자지원 정책 확대·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최저한세율(17%)* 적용과 기업 실적 악화 등 결손 발생에 따른 미 공제액을 이월시키는 제도를 활용 중이나 짧은 이월 기간(10년)으로 미 공제 가능성 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소 7%, 중견 10%, 대기업 17% <p>⇒ 국내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기존 10년 → 20년 연장 추진 필요</p> |

자료 : OMDIA

10 무선통신기기

■ (동향) 2025년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168억 달러 예상

- 미국·홍콩向 수출 증가세가 중국·ASEAN·EU로의 수출 감소세를 상쇄하여 1~9월 무선통신기기 총수출은 약보합세(-0.4%)
 * '25.1~9월 무선통신기기 품목별⁶⁾ 수출 증가율(yoy%): (스마트폰)14.6 (무선통신기기부품)-4.2
 - (완제품) 미국·아랍에미리트·홍콩으로의 수출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2024년 수출 호조 지역이었던 캐나다·EU로의 완제품 수출이 다소 감소하여 총 수출은 14.6% 성장
 - * 1~9월 지역별 스마트폰 수출(백만 달러,'24→'25): (美)133→951 (UAE)61→144 (加)536→273 (EU)1,160→881
 - (부분품) 주력 수출 지역인 중국·ASEAN으로의 수출 금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미국·인도·홍콩 등지로의 부품 수출이 증가하며 총 수출은 소폭 감소
 - * 1~9월 지역별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출(백만 달러,'24→'25): (中)5,057→4,772 (ASEAN)2,161→1,797 (美)136→265 (印)178→229 (홍콩)40→183

■ (전망) 2026년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금년 대비 5.4% 증가한 177억 달러 전망

- 2026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5년 대비 2.8% 증가한 13억 360만대 예상(IDC)
- (완제품) 메모리반도체 등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판매 단가 인상으로 수출 금액이 확대될 전망
 - 스마트폰 제조 원가에서 AP가 차지하는 비중은 30~50%에 달해, 메모리 모듈 단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최종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부분품) 인도와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성장세를 보이는 한편, 중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할 전망
 - 인도는 애플과 삼성 등 주요 기업의 신흥 스마트폰 제조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전자부품 제조 지원 정책(ECMS)을 통해 기업 진출을 독려하고 있음⁷⁾
 - 기존 우리나라의 무선통신기기부품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은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보조금 지급 완료 이후 스마트폰 수요가 둔화되고 있어 수출 둔화가 예상됨

◀ 2026년 무선통신기기 수출 동향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 품 목 | 2024년 | | 2025년(예상) | | 2026년(전망)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무선통신기기 | 172 | (11.1) | 168 | (-2.3) | 177 | (5.4) |

주 : MTI 812 기준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6) 품목명(MTI): 스마트폰(812160), 무선통신기기부품(8128)

7) Counterpoint(2025.7.11.), “2025년 전세계 스마트폰 생산량 감소 전망... 인도·베트남만이 예외적 성장”

■ (수출환경) 2026년 세계 무선통신기기 시장은 완제품 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성장세를 보일 전망

▣ 2026년 무선통신기기 수출환경

| 품목 | 세부 내용 |
|--------|--|
| 업계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4년 대비 2.8% 성장한 13억 360만대 수준으로 전망됨 (I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비 2.7% 증가한 12억 6,860만대로 예상 ▪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16% 성장 - 동기간 중국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판매량 기준)은 49.8%에서 57.3%로, 미국 시장 비중은 10.9%에서 12.5%로 확대 (Counterpoint) ▪ 메모리반도체 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완제품 가격 인상이 본격화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수요 확대 및 공급 축소에 따른 메모리 가격 인상으로 스마트폰 완제품 단가 상승 압력 확대될 전망 - AI 스마트폰 선호가 확대됨에 따라 플래그십 및 프리미엄 제품군의 디램 모듈 탑재량이 확대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음 (IM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주요 플래그십 제품의 메모리 모듈 비용은 금년 대비 약 20~30% 증가할 전망 - 아이폰 17 시리즈의 경우 기존 출시되던 최소용량(128GB) 모델이 단종되었음 ▪ 애플은 금년 3분기 아이폰 17 시리즈를 출시하여 판매량 호조세 기록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폰 플러스 모델이 단종되고 e-sim 기반의 아이폰 에어가 신규 출시되었으나,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로 낮음 - 프로·프로맥스 모델의 판매 비중이 75% 이상으로 프리미엄 제품 선호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Counterpoint) - 다만 폴더블 아이폰 모델 출시와 주요 Apple Intelligence 기능 공개는 지연되고 있음 |
| 경쟁국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은 인도·베트남·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베트남, 중국은 2024년 전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의 90% 이상을 제조 (Counterpoint) - 인도와 베트남은 글로벌 기업의 위탁 생산에, 중국은 자국 브랜드 제품 제조에 특화 ▪ '25년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80% 이상이 자국 브랜드이며, 이들 기업은 자국 내 생산되는 메모리 모듈을 사용하는 공급망을 빠르게 구축하는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웨이는 자체 AP 칩과 운영체계 '하모니'를 기반으로 플래그십 제품군을 출시하면서, 2025년 2분기 들어 4년 6개월만에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 (Counter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스마트폰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 '25.2Q): (화웨이)18, (비보)18, (오포)16, (샤오미)16, (애플)15, (아너)13, (기타)5 (Counterpoint) - 중국의 메모리 모듈 제조 업체들은 화웨이, 샤오미, 트랜센 등 주요 자국내 브랜드 공급망에 진입하며 현지화 전략을 도모하고 있음 (대신증권) ▪ 중국 소비자 수요 증가세는 8월까지 확대되다가 보조금 집행 중단 이후 둔화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정부는 금년 1~8월 이구환신 보조금 예산 3,000억 위안(약 60조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동기간 중국 내 스마트폰 소매 판매액은 21% 증가하였음 (IT之家) |

자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1 섬유

■ (동향) 2025년 섬유패션 수출은 전년대비 6.7% 감소한 98억 달러 예상

- 상반기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소싱수요 관망세와 내수 부진에 의한 원사·직물 등의 전반적 수요 부진 등으로 섬유패션 수출은 감소(-6.7%)
 - 내수 부진에 따른 의류 판매 감소로 베트남 및 아세안 생산이 동반 위축되며 국산 소재 수요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 연쇄 효과가 발생
 * 해외 의류 소싱의 약 70%는 국내 수입(패션협회), 의류 등 완제품 수입량의 40%는 베트남産으로 파악됨
 - 환율·수요 변동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한 범용 소재 수출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고부가 의류 수출은 K-콘텐츠 파급력과 브랜드 경쟁력으로 성장세 강화
 * '25.1~9월 의류 수출(전년대비 %) : 중국(+7.5), 미국(+2.3), 대만(+38.4)
 ** '25.1~9월 국가별 편직물 수출(전년대비 %) : 베트남(-8.9), 인니(-12.1), 중국(-17.4)

■ (전망) 2026년 섬유패션 수출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100억 달러 전망

- (품목별) 전년대비 기저효과, 미국發 관세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26.S/S(춘추)·F/W(추동) 오더 회복세, 한한령 완화 기대 등으로 소재 수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
 * '24년 섬유패션 품목별 수출(비중, %) : 원사류(20.0), 직물(48.6), 의류 등(31.7)
 ** 섬유패션의 한류영향계수는 17.6%로 화장품(17.1%)보다 높게 집계되며 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⁸⁾
 - 다만, 내수 부진 및 영세 제조업체의 경영부담이 확대될 경우 국산 소재 수출 및 생산 감소로 간접적인 수출에 악영향 예상
- (지역별) 미국의 통상 압력 완화에 따른 대외교역 환경 개선 속에 최대 교역국인 베트남·중국 등과의 공급망 안정화에 힘입어 회복세 보일 것으로 판단
 * '24년 국가별 수출(비중 %) : 베트남(20.6), 중국(13.9), 미국(13.0), 인니(6.6), 일본(5.2)

◆ 2026년 섬유패션 수출 동향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 품 목 | 2024년 | | 2025년(예상) | | 2026년(전망)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섬유패션 | 105 | (-4.1) | 98 | (-6.7) | 100 | (2.0) |

주 : MTI 4 기준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8)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4년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 (수출환경) 중국산 저가공세로 인한 수익성 하락의 구조적 문제로 범용소재의 수출 감소세

◆ 2026년 섬유패션 수출환경

| 품목 | 세부 내용 |
|----------|--|
| 업계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이후 중간재 품목들의 침습 속도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구류, 정장 등의 완제품 및 화학섬유, 직물 등 15개 품목의 침습 속도 상승 ▪ 화섬사의 국내 섬유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및 원사 사업 철수로 국내 생산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섬유 생산시설은 수익성 악화 속 베트남 및 인니 등 해외로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중국 투자(백만달러): 1968~'24년(3,666/2,846), '20년(246/13)→'21년(257/77)→'22년(174/58)→'23년(188/58)→'24년(140/79) - 2019년부터 주요 화섬사가 원사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2025년 PE(PET Filament) 생산능력은 약 25만톤 규모로 전년대비 27.3% 감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 코오롱패션머티리얼 나일론 및 폴리에스터 등의 원사사업 철수(3월) * 2023년: 티케이케미칼(3월), 성안합섬(2월) 폴리에스터 원사 가동 중단 ▪ 섬유패션 분야 수입액 상위 10대 품목 중 대부분 품목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 등 섬유 완제품과 원자재 모두 중국산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시장 내 중국 비중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섬단 섬유(섬유원료)의 중국산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수익성 하락에 따른 국내 생산 중단 여파로 증가추세 - 직물의 중국산 점유율은 2005년 이후 50% 내외, 원사(필라멘트)는 40% 수준 |
| 환율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 약세에 따른 섬유패션 산업 수출 단가 경쟁력 및 환차익 개선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패션산업은 석유화학산업과 함께 환율 변화에 따른 수출 탄력성을 유지함에 따라 원화 약세로 수출 단가 경쟁력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실효환율 1% 하락에 따른 산업별 수출 증가 효과(%), 2010년 전/후) : 주요산업(0.71, 0.55), 자동차(0.82, 0.53), 자동차(0.96, 0.12), 섬유(0.56, 0.52), 석화(0.65, 0.66) |
| 미국 관세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관세 등 통상 불확실성으로 소싱수요를 늦추는 경향은 소재 수출 부진으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 업계 애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부진 장기화에 따른 영세 제조업체의 경영부담 확대 시 수출에 간접적 악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 봉제는 생산기지 이전으로 베트남에서 진행되기에 베트남으로 원단을 수출 - 내수 부진으로 의류 소비가 감소할 경우 원단 수출이 감소하는 순환구조 |

자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2 가전

■ (동향) 2025년 가전 수출은 전년 대비 10.0% 감소한 72억 달러 예상

- 美 관세 정책 변동성·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및 북미·유럽 시장 수요 감소
 - (품목별) 가전 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가전 교체수요가 크게 감소
 - * '25.1~8월 美 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기비%) : (전자·가전) -0.6 (가구) 5.4 (외식) 5.5 (전체) 3.8
 - ** '25.1~9월 품목별 수출증감률(전년동기비%) : (냉장고) -26.6 (세탁기) -4.5 (기타조명기기) 8.5
 - (지역별)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한 주택경기 침체 및 관세 영향 등으로 대미 수출 부진
 - * '25.1~9월 지역별 가전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 (북미) -19.5 (유럽) -2.2 (아시아) 5.9 (중남미) 3.3

■ (전망) 2026년 가전 수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73억 달러 내외 전망

- (품목별) 미국의 금리 인하와 주택경기 회복으로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가전 수요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
 - * '26년 미 주택 매매 증가율 전망('25.9월 Fannie Mae, 전년비%) : (기존주택) 9.6 (신규주택) 6.9
- 단, 가전 소비심리가 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회복될 경우, 고가 대형가전 위주의 우리 수출은 수요 회복의 수혜가 제한적일 수 있음
 - * '25.8월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 조사(Mckinsey)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6%가 '26년 가전제품 소비 수준이 기존과 비슷하거나 축소될 것이라 응답
- (지역별) 아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가전 시장 성장에 따라 수출 소폭 상승 전망
 - * '26년 지역별 가전 시장 성장률 전망(NIQ, '25.10월, 전년비%) : (북미) 0.4 (서유럽) 1.5 (동유럽) 1.5 (아시아) -1.5 (남미) 4 (중동·아프리카) 4 (전 세계) 2

▣ 2026년 가전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비%)

| 품 목 | 2024년 | | 2025년(예상) | | 2026년(전망)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가전 | 80 | (0.4) | 72 | (-10.0) | 73 | (1.4) |
| 냉장고 | 26 | (1.8) | 23 | (-13.5) | 17 | (-24.3) |
| 세탁기 | 9 | (-5.4) | 10 | (9.2) | 9 | (-5.0) |

주 : MTI 82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수출환경) 2026년 글로벌 가전 시장은 AI 가전 보급 확대 등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은 낮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

▣ 2026년 가전 수출환경

| 품목 |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미국 내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25.6.23일부터 수입 가전제품에 50% 관세 부과, 국내업체들은 현재 기준 가격 수준을 유지 중이나 수익성 악화로 향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음 * '25.9월 기준, 日·中 기업(샤프, 도시바, 마이디어, 하이센스 등)은 미국 내 제품 가격을 인상하였으나 한국 기업은 점유율을 고려하여 가격 유지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미국 가전시장 점유율 추이</p> <p>(단위 : 비중%)</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24.1Q</th><th>'24.2Q</th><th>'24.3Q</th><th>'24.4Q</th><th>'25.1Q</th></tr> </thead> <tbody> <tr> <td>LG전자</td><td>16.1</td><td>17.3</td><td>17.2</td><td>17.6</td><td>17.0</td></tr> <tr> <td>삼성전자</td><td>14.4</td><td>14.2</td><td>14.9</td><td>15.1</td><td>16.4</td></tr> <tr> <td>GE</td><td>17.0</td><td>16.0</td><td>16.4</td><td>15.9</td><td>16.1</td></tr> <tr> <td>월풀</td><td>16.6</td><td>16.3</td><td>16.6</td><td>15.8</td><td>15.1</td></tr> </tbody> </table> | | | | | | 구분 | '24.1Q | '24.2Q | '24.3Q | '24.4Q | '25.1Q | LG전자 | 16.1 | 17.3 | 17.2 | 17.6 | 17.0 | 삼성전자 | 14.4 | 14.2 | 14.9 | 15.1 | 16.4 | GE | 17.0 | 16.0 | 16.4 | 15.9 | 16.1 | 월풀 | 16.6 | 16.3 | 16.6 | 15.8 | 15.1 |
| 구분 | '24.1Q | '24.2Q | '24.3Q | '24.4Q | '25.1Q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G전자 | 16.1 | 17.3 | 17.2 | 17.6 | 1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성전자 | 14.4 | 14.2 | 14.9 | 15.1 | 1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E | 17.0 | 16.0 | 16.4 | 15.9 | 16.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풀 | 16.6 | 16.3 | 16.6 | 15.8 | 1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자료 : OpenBrand('25.9월)</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대미 수출물량 관련 공급망 조정 및 현지 생산 확대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내기업은 미국 현지 또는 인근 생산거점 투자를 확대 중으로,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생산·수출물량 축소 가능 * (LG전자) 미국·멕시코 세탁기 생산량 확대('25.7월), 테네시 냉장고 라인 신설 계획 ('25.4월) (삼성전자) 미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의 세탁기 생산 캐파 확대 계획('25.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국 관세 영향 | | <p>■ 중국 제품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가전 업계는 중저가 제품을 넘어 하이엔드 제품군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점유율을 지속 확대 중 * 글로벌(美·中 제외) 가전시장 중국 점유율(NIQ, %) : ('21) 7.2 ('22) 7.8 ('23) 8.1 ('24) 9.3, ('25.1~6) 10.8 - 2026년 소비재 이구환신(보조금 지급) 정책이 예산 소진으로 종료*될 경우, 밀어내기식 수출로 인해 중국업체와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쟁국 동향 | | <p>■ 소비자들의 저가 구매 성향 및 교체 주기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가전제품에 대한 지출 축소 차원에서 저가 제품 위주 구매 성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전제품 교체주기도 연장되는 추세 * 가전 교체주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32%가 6~10년, 30%가 10년 이상 제품 사용(NIQ, '25.10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3 컴퓨터

■ (동향) 2025년 컴퓨터 수출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127억 달러 예상

- (동향) 2025년 글로벌 SSD 시장은 고성능 AI 서버, 게이밍 PC 등의 수요 확대에 기반하여 성장세를 보였으나, 상반기 가격 둔화의 영향으로 수출은 소폭 감소

* 글로벌 SSD 시장 성장을 전망(전년비%, Gartner) : ('24) 96.6, ('25e) 7.4, ('26e) 27.7

** 딥시크 영향 등에 따른 데이터센터 투자 재평가와 재고 누적 등 영향으로 '25.1분기 기업용 SSD 가격 전분기 대비 18~23%, 소비자용 SSD 가격 18~23% 하락(트렌드포스, '25.3월)

- (품목별) 고성능 AI 서버 출하 확대, 고용량 QLC SSD 확산 등에 따른 기업용 SSD 수요 증가

* 글로벌 AI 서버 출하량 성장을 전망(전년비%, 트렌드포스) : ('23) 34.6 → ('24) 46.0 → ('25e) 24.1

- (지역별) '블랙웰' AI 서버 양산 지역의 영향으로 북미向 SSD 수출 둔화

* 엔비디아가 발열 문제 등으로 블랙웰 'B200' 및 'GB200' 플랫폼 기반 AI 서버의 대량 생산을 '25년 중반으로 연기함에 따라 SSD 수요도 하반기로 이연

* '25.1~9월 지역별 SSD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 (북미) -0.9 (아시아) 2.7 (유럽) 2.6 (중남미) -33.5

■ (전망) 2026년 컴퓨터 수출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137억 달러 전망

- (품목별) AI 인프라 확대, 스토리지 수요 증가와 HDD의 대용량 SSD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기업용 SSD 수출 증가 지속

* CSP·소버린 클라우드 구축 수요 확대로 '26년 AI 서버 출하량 20.9% 증가 전망(트렌드포스, '25.10월)

- (지역별) 미국 빅테크 중심의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확대로 대미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망 조정 가능성 존재

*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 :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IT 기업

** SSD 원산지는 NAND 생산 국가가 아닌 최종 조립이 이루어진 국가로 판정되어, 저관세 국가나 미국 현지로 NAND 수출 후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형태로 공급망 재편 가능

▣ 2026년 컴퓨터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비%)

| 품 목 | 2024년 | | 2025년(예상) | | 2026년(전망)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컴퓨터 | 132 | (76.7) | 127 | (-3.8) | 137 | (7.8) |
| SSD | 108 | (103.2) | 106 | (-1.9) | 117 | (10.4) |

주 : MTI 813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수출환경) 2026년 글로벌 SSD 시장은 AI 서버 시장 성장 및 스토리지 수요 증가에 따른 QLC SSD 본격 상용화 등으로 성장률 확대 전망

◆ 2026년 컴퓨터 수출환경

| 품목 |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계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서버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추론 애플리케이션의 급속한 확장과 소비Lin 클라우드 구축 수요로 글로벌 AI 서버 시장은 '26년에도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서버 출하량 내 AI 서버 점유율 전망(%), 트렌드포스 : ('23) 8.8 ('24) 12.6 ('25) 14.8 ('26) 17.2 ■ 대용량 QLC SSD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추론이 데이터 스토리지 수요를 크게 확대시키고 있으며, 기존 고용량 HDD 공급 부족으로 대용량 QLC SSD 수요 대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업체들은 QLC NAND 제품을 빠르게 도입 중이며, 생산량은 '26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트렌드포스, '25.9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국 관세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공급망 리스크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수요 확대에도 불구, 대미 SSD 수출은 반도체 관세 대응 등을 위해 공급망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10월 美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는 한·미 무역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쟁국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반도체 자립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당국은 美 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응하여 반도체 자립 전략을 강화 중, 이에 따라 대중국 SSD 수출 둔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9월 중국 당국은 자국 인터넷 기업들에 엔비디아 저사양 AI 칩 구매 금지 지시 ■ 주요 경쟁기업의 글로벌 기업용 SSD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며 경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기업용 SSD 시장점유율 추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23.4Q</th> <th>'24.1Q</th> <th>'24.2Q</th> <th>'24.3Q</th> <th>'24.4Q</th> <th>'25.1Q</th> <th>'25.2Q</th> </tr> </thead> <tbody> <tr> <td>삼성전자</td> <td>35.3</td> <td>38.4</td> <td>36.4</td> <td>38.2</td> <td>34.7</td> <td>35.3</td> <td>39.6</td> </tr> <tr> <td>SK하이닉스</td> <td>21.2</td> <td>24.0</td> <td>25.7</td> <td>24.6</td> <td>24.1</td> <td>17.7</td> <td>20.8</td> </tr> <tr> <td>마이크론</td> <td>9.1</td> <td>9.1</td> <td>12.2</td> <td>12.9</td> <td>13.6</td> <td>16.1</td> <td>17.9</td> </tr> <tr> <td>키옥시아</td> <td>10.5</td> <td>8.2</td> <td>9.0</td> <td>8.2</td> <td>11.4</td> <td>11.0</td> <td>11.9</td> </tr> <tr> <td>산디스크</td> <td>13.3</td> <td>12.0</td> <td>9.2</td> <td>7.5</td> <td>8.9</td> <td>-</td> <td>-</td> </tr> </tbody> </table> | 구분 | '23.4Q | '24.1Q | '24.2Q | '24.3Q | '24.4Q | '25.1Q | '25.2Q | 삼성전자 | 35.3 | 38.4 | 36.4 | 38.2 | 34.7 | 35.3 | 39.6 | SK하이닉스 | 21.2 | 24.0 | 25.7 | 24.6 | 24.1 | 17.7 | 20.8 | 마이크론 | 9.1 | 9.1 | 12.2 | 12.9 | 13.6 | 16.1 | 17.9 | 키옥시아 | 10.5 | 8.2 | 9.0 | 8.2 | 11.4 | 11.0 | 11.9 | 산디스크 | 13.3 | 12.0 | 9.2 | 7.5 | 8.9 | - | - |
| 구분 | '23.4Q | '24.1Q | '24.2Q | '24.3Q | '24.4Q | '25.1Q | '25.2Q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성전자 | 35.3 | 38.4 | 36.4 | 38.2 | 34.7 | 35.3 | 39.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K하이닉스 | 21.2 | 24.0 | 25.7 | 24.6 | 24.1 | 17.7 | 2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이크론 | 9.1 | 9.1 | 12.2 | 12.9 | 13.6 | 16.1 | 17.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키옥시아 | 10.5 | 8.2 | 9.0 | 8.2 | 11.4 | 11.0 | 1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디스크 | 13.3 | 12.0 | 9.2 | 7.5 | 8.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OMDIA('25.7월)

자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REFERENCES

데이터베이스

-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kr/>
- CEIC, CEIC Global DB, <https://insights.ceicdata.com/>
- EIA, <https://www.eia.gov/outlooks/steo/>
- Gartner, <https://www.gartner.com/>
- IMF, IMF WEO October 2025 Database, <https://data.imf.org/>
- Mexico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Geography(INEGI), <https://en.www.inegi.org.mx/>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https://www.stats.gov.cn/>
- OMDIA, <https://omdia.tech.informa.com/>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s://www.bls.gov/>
- USDA, <https://www.fas.usda.gov/>
- 관세청, <https://tradedata.go.kr/>
-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 한국예탁결제원, SEIBro(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https://seibro.or.kr/>
- 한국은행, ECOS(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언론자료

- Bank of Japan(2025.9), “Decisions on Disposal of ETFs and J-REITs”, Statements on Monetary Policy
- 산업통상자원부(2025.12),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



논문 및 보고서

IMF(2025),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5: Global Economy in Flux, Prospects Remain Dim”

OECD(2025),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December 2025: Resilient Growth but with Increasing Fragilities”

World Bank(2025), “Commodity Markets Outlook October 2025”

WTO(2025), “Global Trade Outlook and Statistics October 2025”

전보희 외(2025), “2025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TradeFocus No.15,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해외건설협회(2025), “2025년 3분기 해외건설 수주실적 분석”